

중학생통계논술

통계로

논리를

잡아라



중학생통계논술

통계로

논리를

잡아라

S T A T I S T I C S

머리말

표와 그래프 속에 숨어 있는 논리를 찾아서

통계로 논술을 공부한다고 하면 ‘어, 이건 아닌데…….’ 하며 고개를 갸웃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통계는 수학에서나 배우는 머리 아프고 어려운 것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친구도 있겠지요.

우리는 수학 과목을 통해 평균, 산포도 등과 같은 통계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표나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도 배웁니다. 수학 시간에 배우는 통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통계자료를 만들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통계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미래를 예측할 때도 숫자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앞으로 몇 년 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까지의 인구 구성 변화 등을 토대로 하여 수치로 예측합니다. 따라서 그냥 어림짐작 하거나 대충 둘러대는 것은 통계적 사고와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S T A T I S T I C S

통계표와 그래프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보여 주기 위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어 논리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통계자료를 이용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하고 이를 글로 써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각각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생각열기, 통계자료를 통해 주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통계로 논리잡기, 학습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는 논리 따라가며 정리하기, 그리고 연습문제인 생각펼치기 등으로 구성되어 중학생의 눈높이에서 논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논리력 향상과 논술 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주제를 재미있게 분석해 집필해 주신 문우일, 윤상철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통계교육원 원장 변효섭

지 | 은 | 이 | 의 | 글

통계를 통해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자

날이 더울수록 생각나는 것은 수박이다. 뜨거운 여름 한나절엔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계곡 물에 담가 두었던 수박 한 입이 참으로 그립다. 그런데 올 여름 전국의 농장에서 생산된 수박은 모두 달고 맛있을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것은 모든 수박을 일일이 직접 먹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통계다. 통계적 기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표본집단을 통해 전체 모집단의 특성을 미루어 짐작하도록 해 준다. 수박 한쪽 구석을 삼각형으로 따서 맛보고 난 후 나머지 전체 수박의 맛을 추측하는 것도, 상자 위쪽에 보이는 사과 상태를 통해 상자 안 모든 사과의 상태를 추측하는 것도 통계적 상상의 하나이다. 통계를 통해, 우리는 이처럼 일부분으로 전체를 기늠할 수 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신문에서, 또 책에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들을 만난다. 이 자료들은 때로는 숫자가 가득한 표로, 때로는 아파트가 서 있는 듯한 그림으로, 때로는 한입 떼어낸 도넛처럼 둥그런 원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통계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알려면 구성 요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따져보지

S T A T I S T I C S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은 흔히 논리적 글쓰기라고 한다. 하지만 글쓰기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논리적인 사고력이다. 이런 면에서 통계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훈련은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논술수업을 하다보면 마구잡이식 사고에 익숙한 학생들을 많이 본다. 글보다는 그림이, 특정 주제에 대한 논리적 설명보다는 댓글과 같은 직관적 단문이 익숙한 요즘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균형 잡힌 사고를 발전시키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자료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놓고 보다 훌륭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은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책이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9년 9월 문우일, 윤상철

S T A T I S T I C S

중학생통계논술

통계로 논리를 잡아라



1

통계로 사회 읽기

스타 연봉 속에 숨은 비밀 ·11

기초 과학을 살리자 ·25

소비의 여러 가지 얼굴 ·37

성형수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53

고령화 사회의 빛과 그늘 ·69

휴대전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81

차례



2

통계로 세상 만나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 95

기부, 아무나 한다 · 109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 125

우리의 불편함은 환경의 즐거움! · 139

통계야 나와라. 승리가 간다! · 155



chapter

01

스타
연봉 속에
숨은 비밀

평균 연봉과 대푯값



생각열기

01



선망의 대상 프로 야구 선수



팬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성 속에 열심히 뛰는 프로 야구 선수들, 그들은 청소년의 우상이자 선망의 대상이다. 특히 그들이 받는 엄청난 연봉(평균 1년 수입)을 생각하면 부러움은 절정에 이른다.

예컨대 일본에 진출한 ‘국민 타자’ 이승엽 선수는 2009년 연봉이 6억 5,000만 엔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4억 5,000만 원이다. 일주일에 약

1억 6,000만 원을 버는 꼴이다. 한마디로 입에서 ‘억’ 소리 나오는 액수이다.

국내 프로 야구 선수들 중에도 비록 이승엽 선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연봉이 7억 원 이상인 선수들이 있다. 일반 직장인들의 연봉이 2,500~4,000만 원 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이제는 운동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실감나는 시대이다.

우상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
선망 부러워하여 바람

화려함 뒤의 그늘

많은 사람들이 프로 야구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하고, 실수를 안타까워한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마음껏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많은 연봉을 받는 그들은 청소년의 우상이다. 그러나 다음 기사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 프로 야구 선수 최저 연봉, 내년부터 2,400만 원으로 인상 -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검토돼 온 최저 연봉(야구규약 제70조 참가활동보수 최저 보장)을 기존 2천만 원에서 2010년도부터 2천 400만 원으로 400만 원 인상하기로 했다.” -○○신문 2009.5.29

- 프로 야구 선수 80%, 연봉 수준 불만족 -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의뢰로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프로야구 선수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인의 연봉 수준에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33%이고,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변한 선수도 47.6%에 이르렀다.”

-www.yagootimes.com

프로 야구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번다는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당혹스러운 기사이다. “A구단 000 선수, 연봉 7억에 구단과 계약!”과 같은 신문 기사와 너무 차이가 나는 보도이기 때문이다.



통계로
논리 잡기



평균 연봉에 숨겨진 비밀

모든 프로 야구 선수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실제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일까? 조사해 보니 2009년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8,400만 원대라고 한다. 또 2009년 9월 취업포털 '인크루트 연봉' (opensalay.incruit.com)에 의하면 347개 상장 기업의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평균 2,713만 원이다.

이를 비교해 보면, 프로 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일반 직장인의 1년 수입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평균 연봉으로만 판단한다면 프로 야구 선수는 할 만한 직업이다. 그럼 <생각 열기>에서 보았던 신문 기사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가?

'평균 연봉'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다. 2009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록된 프로 야구 선수는 모두 477명인데, 이 중 24%인 114명이 연봉 2,0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부와 명예를 누리는 선수들 뒤에는 힘겹게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있다. 사람들은 보통 운동 하나만 잘해도 사회적 명성과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그늘이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프로 야구단의 하나인 L구단 선수(총 51명)들의 연봉 액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L구단의 평균 연봉은 7,422만 원이지만, A-14부터 A-51까지의 선수 38명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전체 선수의 74.5%가 평균 이하의 연봉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이에 비해 A-1, 2, 3 세 선수의 연봉 합계는 13억 3,900만 원이다. 이 세 사람의 연봉 합계액을 51명으로 나눠도 2,625만 원이 나온다.

S t a t i s t i c s

〈표 1〉 2009년 L구단 선수들의 연봉 액수

(단위 : 만 원)

	선수	연봉	선수	연봉
세 선수의 연봉 합계 13억 3,900만 원	A-1	70,000	A-27	3,500
	A-2	36,000	A-28	3,500
	A-3	27,900	A-29	3,100
	A-4	15,000	A-30	2,600
	A-5	15,000	A-31	2,600
	A-6	15,000	A-32	2,500
	A-7	14,500	A-33	2,300
	A-8	13,000	A-34	2,200
	A-9	12,000	A-35	2,200
	A-10	10,500	A-36	2,100
	A-11	10,500	A-37	2,100
	A-12	10,000	A-38	2,100
	A-13	10,000	A-39	2,000
이 부분 38명의 선수는 평균 이하의 연봉	A-14	6,500	A-40	2,000
	A-15	6,500	A-41	2,000
	A-16	6,200	A-42	2,000
	A-17	5,800	A-43	2,000
	A-18	5,500	A-44	2,000
	A-19	4,600	A-45	2,000
	A-20	4,500	A-46	2,000
	A-21	4,000	A-47	2,000
	A-22	4,000	A-48	2,000
	A-23	3,800	A-49	2,000
	A-24	3,700	A-50	2,000
	A-25	3,600	A-51	2,000
	A-26	3,600	평균	7,422

자료 : 한국야구위원회(KBO) 홈페이지

S t a t i s t i c s

그런데 이 금액에도 못 미치는 2,6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22명이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구단의 평균 연봉 약 7,422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

아래의 그림은 <표 1>을 보다 알아보기 쉽게 그래프로 만든 것이다. 표를 그래프로 바꾸면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선수들이 매우 많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림 1>을 보면 S에 속하는 세 사람 때문에 전체 평균이 너무 높게 잡혔다.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상당히 다른 값이 나온다. 이런 경우 전체 값을 가지고 계산한 평균값은 이 구단의 연봉을 대표하는 값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구단 선수들의 연봉과 관련하여 세 가지 유형의 대푯값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이 이 구단 선수들의 연봉 값을 대표하고 있을까?

평균값	7,422만 원
중앙값	3,600만 원
최빈값	2,0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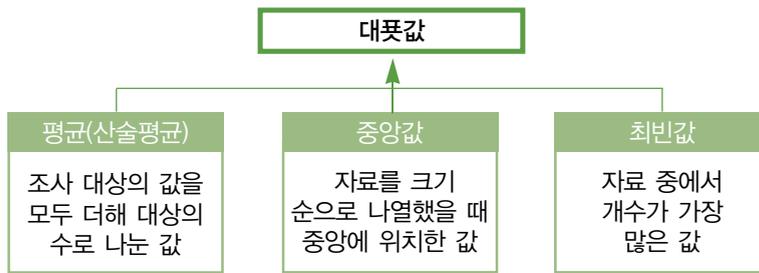
S t a t i S t i c S

많은 사람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몇몇 프로야구 선수를 보고 모든 선수가 비슷하게 돈을 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잘못 적용한 통계 수치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

초임 처음으로 어떤 직(職)에 임명되거나 취임함. 또는 그 직

대푯값의 다양한 유형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〇〇점이다.”,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키가 평균 〇〇cm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이 〇〇만 원이다.”, “우리 경제가 3년 사이에 〇〇% 상승했다.” 등등... 이런 통계 조사에서는 보통 ‘조사 대상을 대표하는 값(대푯값)’으로 조사 대상의 특징이나 현상을 보여 주게 된다. 따라서 어떤 것을 대푯값으로 하느냐에 따라 현상을 바르게 볼 수도 있고, 왜곡되게 볼 수도 있다.



세 가지 대푯값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 예를 살펴보자. 아래 표는 한 중학교 1학년 어떤 반의 국어 과목 성적이다. 이 반의 국어 성적을 대표하는 값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평균값’을 말한다. 그러나 대푯값을 무엇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이 반의 국어 성적을 대표하는 값은 달라진다.

국어 성적 분포	산술평균	중앙값	최빈값
55, 62, 68, 72, 78, 78, 78, 83, 85, 88, 88, 90, 92, 95, 100	80.8	83	78

〈참고〉 만약 자료가 홀수 개일 때는 중앙에 있는 자료가 중앙값이지만, 짝수 개일 때는 중앙 부근에 있는 두 개 자료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

왜곡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어떤 경우에 어떤 대푯값을 사용할까?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대푯값은 그 쓰임새가 다르다. 시험을 보고 나서 전 과목의 평균 성적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산술평균은 계산이 어렵지 않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푯값을 정하려는 집단의 모든 값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본 A구단의 연봉처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값(이상치)이 있을 경우, 평균값이 너무 크게 나와서 대푯값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중앙값은 산술평균이 대푯값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너무 큰 값'이나 '너무 작은 값'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한다. 난쟁이 나라에 걸리버가 오면 산술평균에는 변화가 생기지만, 중앙값에는 차이가 없다.

최빈값은 주로 옷이나 신발의 표준치수를 정할 때 사용한다. 즉, 옷이나 신발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치수를 그 옷이나 신발의 대푯값으로 삼는다.

또, 한 집단을 대표하는 최빈값은 여럿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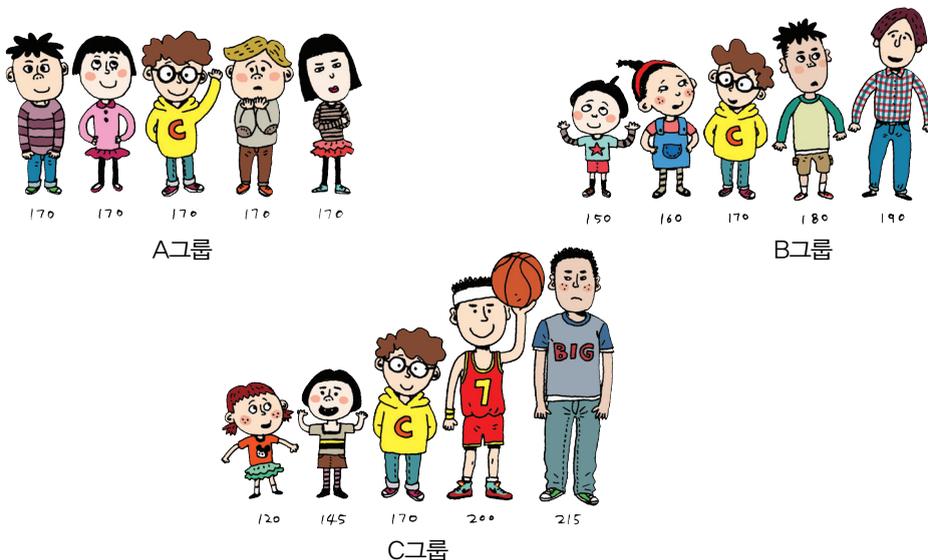
이상치 다른 값들에 비해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값

대푯값이 같다고 같은 그룹은 아니다

A, B, C 세 그룹 학생들의 키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 세 그룹 학생들의 키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은 무엇일까?

B와 C 그룹의 경우, 구성원의 키가 모두 다르므로 최빈값은 없고, 평균값과 중앙값은 세 그룹 모두 '170'으로 같다. 따라서 평균값과 중앙값만으로 살펴보면, 이 세 그룹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세 그룹이 같지는 않다. 구성원들 간의 키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그룹은 분명 다르다. 즉, 다음과 같이 말하면 세 그룹의 차이를 보여 줄 수 있다.

“A그룹 학생들의 키는 모두 170cm이다. B그룹은 150cm부터 190cm까지 있으며, C그룹은 120cm부터 215cm까지 있다. 그리고 A그룹에서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의 차이는 없지만, B그룹은 40cm, C그룹은 95cm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 그룹 중 C그룹 구성원들 간의 키 차이가 가장 크다.”



S t a t i s t i c s

어떤 그룹 안에서 가장 큰 사람과 가장 작은 사람의 키 차이와 같이, 구성원들의 값이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 한다. 산포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 가장 간단한 것이 최댓값에서 최솟값을 뺀 값인 '범위'이다. 범위가 클수록 집단의 구성 요소 들 값의 흩어진 폭이 넓고, 작을수록 흩어진 폭이 좁다.

	A그룹	B그룹	C그룹
산술평균	170	170	170
중앙값	170	170	170
최빈값	170	모두 값이 달라 최빈값은 없다.	
범위	0	40	95

이처럼 크기가 고르지 않은 집단의 경우에는 대푯값 외에 범위를 덧붙이면 각 집단의 특징을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생각펼치기



어느 마을에 살고 싶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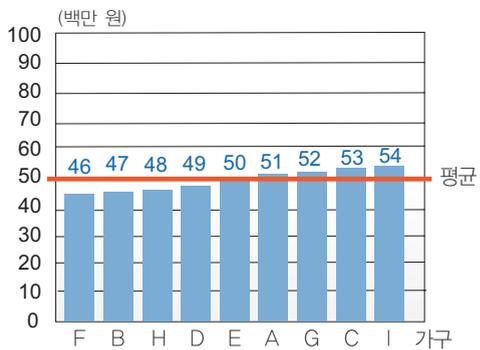
가구 수가 각각 9개인 마을 (가)와 (나)의 가구당 한 해 소득이 다음 표와 같다. 가장 잘 사는 집에 태어날지, 가장 못 사는 집에 태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가), (나) 마을 중 한 마을에 태어난다면 어느 마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마을 (가)와 마을 (나)의 가구당 연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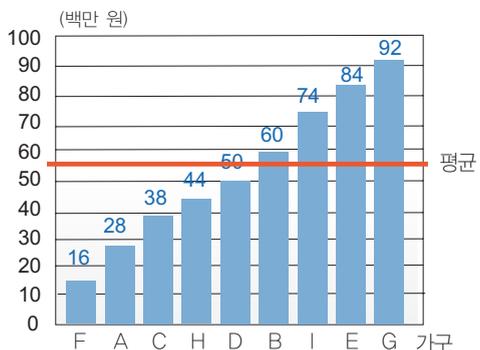
(단위 : 백만 원)

	A	B	C	D	E	F	G	H	I	가구 평균
마을 (가)	51	47	53	49	50	46	52	48	54	50
마을 (나)	28	60	38	50	84	16	92	44	74	54

마을 (가) 가구별 연소득



마을 (나) 가구별 연소득



S t a t i s t i c s



나는 마을 (가)가 좋다. 그 이유는...

빈부격차가 작으니까
_____해서 좋다.



나는 마을 (나)가 좋다. 그 이유는...

빈부격차가 존재해도
_____해서 좋다.

HINT

평균에 몰려 있을수록 빈부격차가 작음을 나타냄



chapter

02

기초 과학을
살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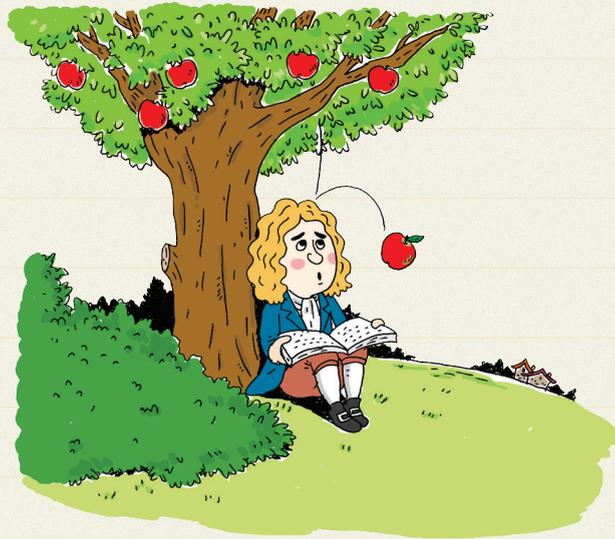


과학자는 우리에게 자연의 법칙을 알려 준다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이유를 궁금해 하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아이작 뉴턴(1642~1727)은 사과가 아래로 똑바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과와 지구 사이에 측량 가능한 어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결국 만유인력의 법칙을 찾는다.

이 법칙의 발견으로 지구가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었고, 혜성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과학자는 이처럼 “알아서 뭐 하려고?”라는 편견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을 탐구한다. ‘알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자는 자신의 모든 힘을 과학에 던진다.

만유인력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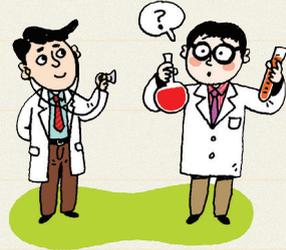




02

생각열기

과학자 No, 의사 Yes



KAIST 학생 64% “고시·의대 편입 고민해 봤다”

국내 최고의 이공계 대학 중 하나인 KAIST 학생들조차 상당수가 과학자의 꿈을 포기하고 고등고시를 보거나 의대에 편입하는 것을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학부 총학생회가 지난 3월말 재학생 중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치·의대 편입이나 치·의학 대학원 시험, 사법·행정고시, 공무원 시험 등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274명 중 175명(63.9%)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175명 중 88명(50.3%)이 ‘더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서’ 라고 밝혔고, 45명(25.7%)은 ‘더 나은 보수를 위해서’, 25명(14.3%)은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라고 각각 응답했다. ‘이공계가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11명) 등 기타 응답자도 17명이나 있었다.

—○○일보, 2009.5.



통계로
논리 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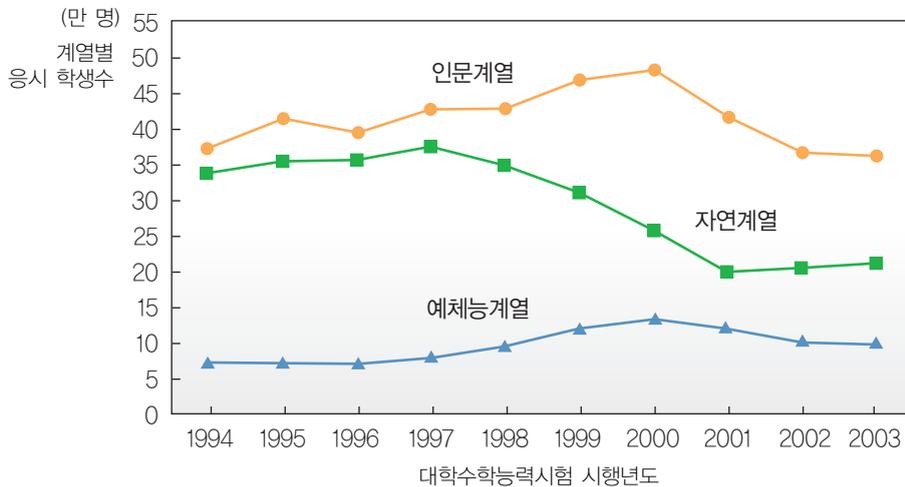


이공계 진학생의 감소

과학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과학의 발전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과학 분야에 첫발을 내딛은 사람들부터 흔들리고 있다. 과학자보다는 의사, 판·검사가 더 좋다는 이유로 과학을 포기하려 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일을 막을 수는 없는지 알아보자.

청소년들 중 과학자가 되려는 학생은 얼마나 될까? 중간에 진로가 바뀔 수는 있지만, 일단 자연계열(이공계)에 진학하는 학생은 과학 분야의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그 학생들의 수를 살펴보자.

〈그림 1〉 1994~2003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계열별 지원자 수의 변화 경향



자료 : 「초중등 우수학생 이공계 진출을 위한 과학교육정책 방안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4
 *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계열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자료를 산출할 수 없음.

S t a t i s t i c s

앞의 그래프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계열별 지원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이공계(자연계)로 진학하는 학생이 급격히 줄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약간 늘었다. 그러나 지금도 전체적으로는 이공계로 진학하려는 학생이 인문계 지원자에 비해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이공계로 진학하려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수한 학생들이 특정한 학과에 몰린다는 점이다. 인문계열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보통 법학과나 경제·경영학과에 가고 싶어 하지, 역사·철학·언어 같은 기초 학문을 공부하는 학과에 진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자연계열에서 우수한 학생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물리, 화학 등의 순수과학 분야보다 의대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심지어 순수 과학 분야로 진학한 학생들마저 직업을 택할 때는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갖기 원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 의·치의학 대학원에 지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과학의 꽃은 노벨상이다

〈표 1〉 과학 분야 노벨상 역대 수상자 수

(단위 : 명)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일본	중국	한국	기타(18개국)	총 27개국
227	74	69	30	15	15	14	12	4	0	68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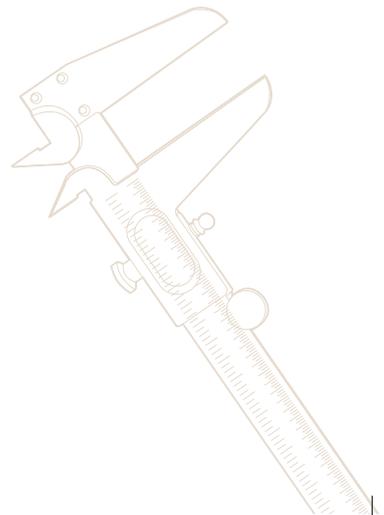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09)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85개국 중 14위로 경제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런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 실적은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형편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1960~7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선진국의 과학과 기술을 모방하며 선진국을 추격해서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만의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는 선진국 수준이 되었으나 기초 과학 분야에서는 아직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게 된 것이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기술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과학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니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기초 과학을 비롯한 강력한 이공계열 육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 다음 자료는 그 걸림돌들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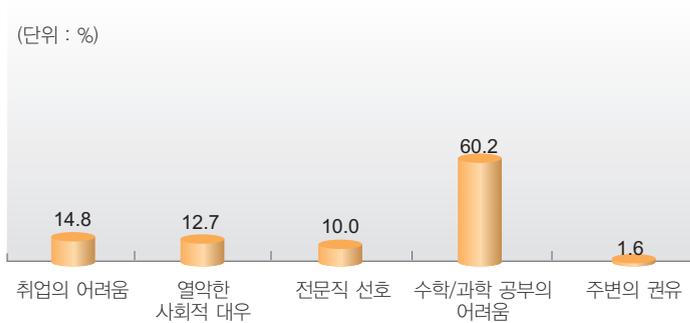
모방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
육성 길러 자라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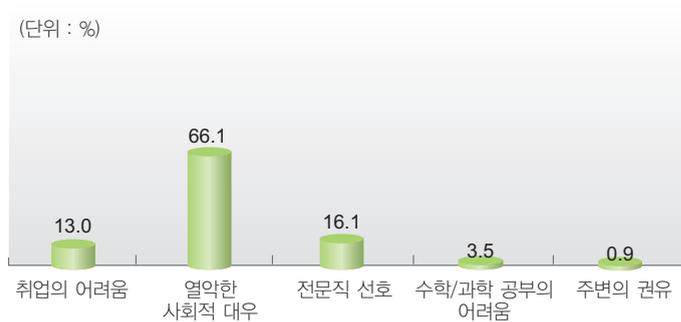
이공계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아래의 두 자료는 청소년과 과학 분야 전문가, 두 집단의 답변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공계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공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수학·과학 공부의 어려움'을 꼽았고, 과학 분야 전문가들

〈그림 2〉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청소년의 대답) 〈응답자 : 625명〉



〈그림 3〉 이공계 기피 현상의 원인(과학 분야 전문가*의 대답) 〈응답자 : 230명〉



*전문가 : ①한국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문화사업 소위원회 ②전국 주요 국/사립대 이공계열 교수 ③한국과학기자협회 소속 기자 ④국공립 연구소 연구원 ⑤과학기술부 각 실/국의 기관별 업무총괄 담당자 ⑥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상임위 소속 의원 보좌진 등.

자료 :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 보고서」, 한국과학문화재단, 2006

S t a t i s t i c s

은 ‘열악한 사회적 대우’ 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면 가장 우선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객관식 시험 형식과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잃어버린, 중·고등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되찾도록 교과 내용 및 수업 방식 등이 변해야 한다. 즉, 실험과 체험 중심으로 과학 교육 방법을 바꿔야 한다. 과학을 ‘시험을 보기 위한 학문’ 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이해하는 도구’ 로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청소년이 늘어날수록 이공계 지원자도 많아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 보다 현실적으로는 과학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인 ‘열악한 사회적 대우’ 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제시해야 한다.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은 많지만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과학자가 되기는 싫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이공계 지원자가 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수학과 과학 공부가 재미있어서 이공계 대학으로 진학하더라도 사회적 대우 문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공계 지원자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일단 통계자료에서 나온 가장 핵심적인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 물론 나머지 다양한 원인도 해결해야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나라도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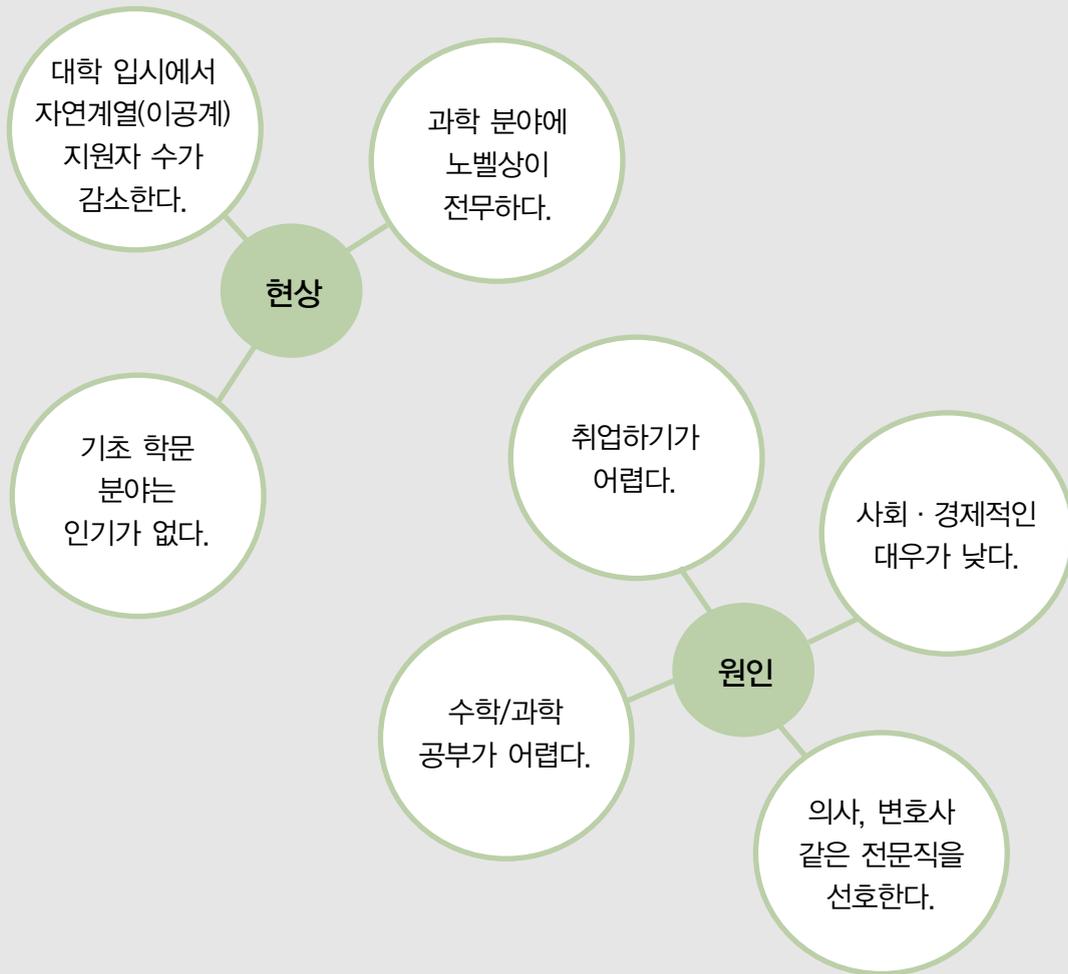
열악 품질이나 능력, 시설 따위가 매우 떨어지고 나쁨

논리 따라가며 정리하기

과학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학자의 길은 어렵다.왜?



생각펼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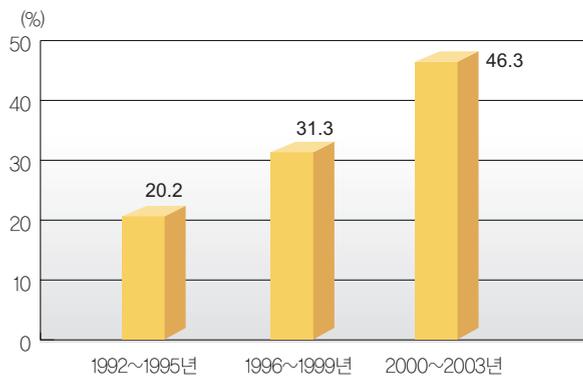


기초 과학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우리들의 현실

현상 1 미국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이며 국가의 발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다.

현상 2 이공계보다 의대 진학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의학계열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나마 이공계로 진학했던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40% 이상이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그림 4〉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 미국 정착률



자료 : 「두뇌 강국으로 가는 길」, 삼성경제연구소

위 현상들은 우리나라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아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공계를 기피하거나, 이공계 박사학위를 받고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으려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표에서 찾아보자.

S t a t i s t i c s

생각펼치기

〈표 2〉 전공 분야별 임금 비교

(단위 : 만 원)

		인문사회계	이공계	전체
경과 시점	첫 직장	136.3	113.0	123.8
	5년 후	176.5	159.2	169.1
	10년 후	203.6	197.6	201.9
	15년 후	221.5	208.7	215.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KLIPS)」 1-4차 원자료, 박성준(2004)에서 재인용

현상 말하기

대안 말하기

chapter

03

소비의
여러 가지 얼굴





절약-검소가 미덕이다

경제 성장을 이루기 전, 우리 국민은 소비를 하고 싶어도 물건을 살 능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거의 없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6.25전쟁을 겪으면서 남아 있는 건물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에서 지금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냈다. 폐허에서 일어나기 위해 '잘살아 보자'는 표어 아래 모든 힘을 경제 발전에 쏟아 부었다.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꼭 필요한 물건만 사면서 소비를 최소화하고 저축을 장려했다. '사치 생활을 추방하자'는 캠페인을 벌여 '근면-검소-절약'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 홍보했다.

무미일(無米日)을 아십니까?



1969년 1월 23일, 정부는 혼·분식을 장려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 즉 무미일(無米日)로 정했다.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판매할 때 보리나 밀가루를 25% 이상 혼합해야 하며, 특히 '분식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음식점을 단속하여, 혼·분식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특히 무미일인 '분식의 날'에는 모든 음식점들이 밀가루 음식만을 팔아야 했는데, 쌀밥으로 영업해야 하는 한식집이 큰 타격을 받았다. 따라서 일부 음식점에서는 보리를 형식적으로 혼합한 밥을 판매하고, 단골손님에게는 쌀밥을 몰래 팔기도 하는 등 은밀히 단속을 피하곤 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매일같이 도시락 검사가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에 잡곡이 제대로 섞였는지 검사 받았으며, 잡곡밥을 싸 오지 못한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에서 보리쌀이나 콩을 가져다 자기 도시락에 옮겨 박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혼·분식 실적은 성적에 반영되었고 규정을 위반한 학생은 체벌을 받았다.

식량 자급에 성공한 1977년 강압적인 혼·분식 장려 행정명령은 해제되었다.

— ○○일보, 2009. 1.

장려 좋은 일에 힘쓰도록 복돋아 줘

생각열기

02



소비가 미덕이다

예전에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물건만 최소 비용으로 사는 것이 소비의 주된 경향이였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자 사람들의 소비 경향이 많이 변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소비를 많이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강조하자 ‘절약과 검소의 미덕’을 높이 평가하던 사회 분위기가 ‘소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건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생산한 물건이 팔리기 때문이다.

소비에 가려진 ‘저축의 날’ 행사

매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의 저축왕’을 뽑아 포상하고 훈장·표창도 주는 ‘저축의 날’이다. 그런데 올해 저축의 날(26일) 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대폭 축소되어 조촐하게 치러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몇몇 대중스타들을 모범 저축인으로 선정하여 범국민 캠페인 차원에서 저축의 날 행사를 치러왔다. 저축왕 선정도 자신의 소득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을 저축했느냐 하는 자린고비 기준에 맞춰졌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난해 390명이었던 수상자 숫자가 186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표창 기준도 과거에는 단순히 얼마나 저축을 많이 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올해는 건강한 소비와 저축의 조화 정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1970년대에 이 행사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읽고 훈장을 주며, 군악대와 합창단이 동원돼 성대하게 열렸다. 그러나 최근 몇 해 동안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의 축사 정도로 규모가 줄어들고 의미도 ‘격하’ 됐다.

민간 소비가 뚝뚝 얼어붙어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요즘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저축을 장려하기가 여간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40년간 이어져 온 저축의 날 행사를 취소할 수도 없어 행사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한 것.

재정부 관계자는 “무조건 저축을 장려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저축도 단순히 돈을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한 개인과 금융기관의 투자는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고,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되니 ‘절약으로 가계안정, 저축으로 나라안정’이란 표어도 무색하게 되었다.

— ○○일보, 2004. 10.

격하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낮아짐. 또는 그것을 낮춤

재정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경기회복 경기가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들어서는 상태

무색 겸연쩍고 부끄러움

통계로
논리 잡기



소비란 무엇인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가져다 팔기도 하고 그 물건을 사기도 한다. 그 중 물건을 사는 것을 소비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비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쓰는 일을 말한다.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사 먹는 것, 몸을 보호하기 위해 옷을 사는 것, 오락을 즐기기 위해 TV를 사는 것, 미용실에서 내 머리를 손보는 것 등이 모두 소비에 속한다.

그런데 소비에도 원칙이 있다. 소비자들은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소비를 한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한다. 만약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장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한다.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란 자신의 여건에 맞으면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이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소비 방법의 변화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소비 대상과 방법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세계화, 정보화를 이루면서 소비자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인터넷의 발달에 힘입어 소비자들이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둘째, 감성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기능은 물론이고 감성을 자극하는 상품에 지갑을 열고 있다. 셋째,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소비한다. 댓글 및 사용 후기 등을 통해 물건을 산 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수준이 높아졌다. 넷째, 편리함을 중요시한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에서 간편하고 쉽게 소비하고 싶어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표현 욕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대중 속에서 자신의 개성을 더욱 표출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 주는 몇몇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여러분은 물건을 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가격? 품질? 디자인?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이제 단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물건을 사지는 않는다. 품질은 기본이고 상품의 예술성까지 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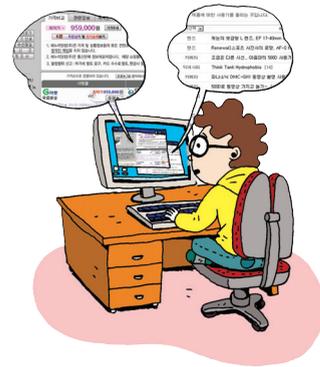
오른쪽 그림 속에 있는 것은 언뜻 보기엔 그림 액자로 보이지만 실은 에어컨이다. 이제 이처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즐겨 찾는 소비자가 나타났는데, 이들을 아티젠(Artys Generation)이라 부른다.



Arty 예술적인 Generation 세대

S t a t i s t i c s

우리 사회가 정보화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장 좋은 상품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파는 곳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들은 제조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광고만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직접 상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품질을 꼼꼼히 확인하려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의 평가와 가격을 비교해 보고 깐깐하게 따져 가며 물건을 고른다. 이들을 트레저 헌터(Treasure Hunter)라 부른다.



Treasure 보물 Hunter 사냥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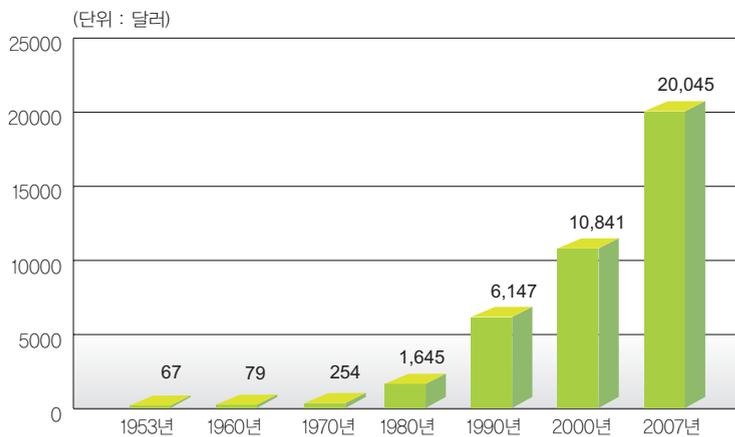
서울에 있는 한 복합 쇼핑몰에는 쇼핑을 하는 공간 외에 식당, 미용실, 커피숍, 심지어 영화관까지 있어 쇼핑몰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대형 복합 쇼핑몰에서 쇼핑뿐만 아니라 오락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소비 행위를 몰링(Malling)이라 일컫는다. 이처럼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넘어 쇼핑 자체를 하나의 즐거운 경험으로 여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들을 몰링족이라 한다.

소비의 방법과 대상이 변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는 시대에 따라 변한다. 특히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기 이전 1960~70년대에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필수품을 재래시장에서 사는 것이 소비의 주된 경향이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고 정보화 사회를 이룬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비 경향은 많이 변했다.

1953년 1인당 국민소득이 단 67달러이던 시절과 2만 달러를 넘나드는 현재의 소비 행태가 많이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제는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필품 구매의 경우에도 무조건 싼 것만 찾지 않는다. 과거에는 '사치품'이라 하여 멀리 했던 물건도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선호의 대상이 되었고, 또 이를 산다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림 1〉 국민소득 변화(1인당 GNI)



자료 :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통계청, 2008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문화의 등장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야 하는, 또는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므로 소비를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소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합리적 소비라 한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잘못된 소비 행태를 보여 주는 경우가 많다. 다음은 비합리적인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① 남들이 사면 나도 산다.

“승어가 뛰면 망둥어도 뛰다”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명품 가방을 샀으니까, 나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 유행하면 그 물건을 구입하려 한다. 이런 현상이 마치 퍼레이드의 맨 앞에서 음악대를 싣고 행렬을 이끄는 악대차(밴드웨건)가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여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라 한다.

② 남들이 사면 나는 사지 않는다.

“나만의 개성을 추구한다.”

“난 다른 사람과 달라.”

자신은 주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매우 다른 사람임을 나타내 보이려고 남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과는 뚜렷이 다른 것을 사거나 입는 행위를 스노브 효과(Snob Effect; 속물 효과)라 한다.

S t a t i s t i c s

예를 들면, 남들이 모두 청바지를 입고 다니면, 자신은 더 이상 청바지를 입지 않고 그 대신 가죽 바지를 입고 다니는 식의 소비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③ 비싸기 때문에 산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뽐내고 싶은 심리에서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 과시 효과)라 부른다. 흔히 '줄부' 들에게서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비싸서 다른 사람들은 살 수 없는 물건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회 경제 상황이 나빠져도 이들의 소비는 잘 줄어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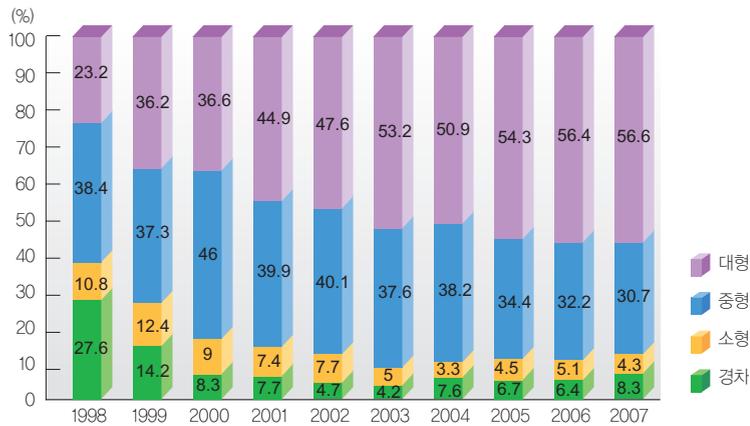
행태 행동하는 양상.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쓴다

스노브 신사인 체하는 속물, 또는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

백새가 황새 따라가다 다리가 찢어진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승용차를 살 때 큰 차를 사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용차는 원래 편리한 생활을 위한 도구이지만, 이를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림 2〉 승용차의 차종 비율 추이(신규 등록 대수 기준)



자료 : 「중대형 승용차 증가에 따른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08

소위 '명품'을 구매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물론 소득이 매우 많은 사람이 값 비싼 명품을 사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지도 않고 그리 필요치도 않은 물건을 사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할 수 없다.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위 '명품'을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소비 과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S t a t i s t i c s

어떤 회사의 한 여성 디자이너가 회장 아들과 특급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다. 명문대 출신에 미모까지 갖춘 그녀는 평소 구두부터 머리핀까지 모든 제품이 고가 유명 브랜드여서 별명도 ‘걸어 다니는 명품관’이었다. 미모와 지성, 패션 감각까지 갖춘 데다 자신이 다니던 회사 회장 아들과 결혼했으니 ‘신데렐라’가 된 듯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부러움도 잠시. ‘명품 신데렐라’의 진실이 드러났다. 그 신부는 본인이나 친정의 재력이 아니라 온통 카드와 주변에서 빌린 돈, 심지어 사채까지 얻어서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넉넉지 않은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명품에 눈먼 그는 카드로 물건을 산 후, 카드 연체료를 막기 위해 다른 카드를 만들고, 또 단골로 친해진 명품점의 직원들에게까지 수시로 돈을 빌렸다. 20대 중반의 이 여성이 진 빛이 무려 10억여 원에 이르렀다.

본인의 능력에 맞지 않는 소비, 명품 선호의 문제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물건을 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물건을 산다.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어야 나의 품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나의 품위는 ‘내 마음’과 ‘내 행위’에서 나온다. 결코 내가 구입한 물건에서 나오지 않는다.

과시 자랑하여 보임

생각펼치기



질문



아빠, 저 이 가방 사 주세요.



너, 가방이 있잖아.



요즘 아이들은 제 것 같은 가방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렇다고 망가지지도 않은 멀쩡한 가방을 놔두고 또 산다고?
그건 안 돼.



그래도.....



설령 새로 산다고 해도 저건 너무 비싸. 학생 신분엔 맞지도
않고.....



다른 아이들도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A)



남이 가지고 있다고 너도 꼭 가져야 하니?



나만 없으면 이상하잖아. ㅠㅠ
그리고 저 가방을 쓰면 있어 보이잖아요.(B)



가방은 쓰기 위해 사는 거지,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야. 저기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쁜 가방이 있네.



저걸 쓰면 없어 보이잖아요.



—.....

S t a t i s t i c s

생각필치기

1 밑줄 친 (A) (B)는 앞에서 배운 소비 현상 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A) -----

(B) -----

2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의 아빠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반쪽 글꼴 B 반쪽 글꼴 A (1) 글



여러분 가정의 소비 방식은 어떤지 본문의 내용과 비교하여 써 봅시다.



chapter

04

성형수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조선시대 미녀에게 쌍꺼풀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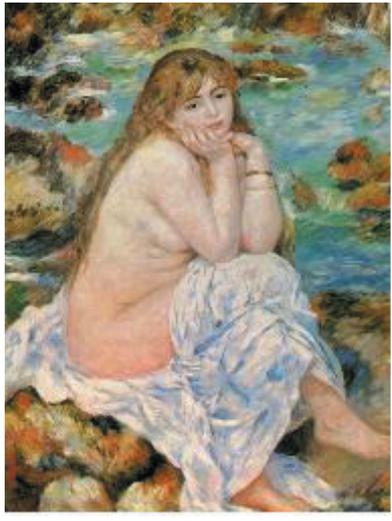
「미녀도」, 신윤복 작

요즘은 많은 여성, 심지어 남성들도 쌍꺼풀 수술을 한다. 쌍꺼풀 수술은 아름다워지기 위한, 소위 '얼짱'이 되기 위한 기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화가인 신윤복의 「미녀도」에서는 '큰 눈'과 '쌍꺼풀'을 찾을 수 없다. 동양인의 전형적인 눈이 그려져 있을 뿐이다. 조선 시대의 예쁜 얼굴과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 꿈꾸는 예쁜 얼굴 사이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

또,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몸짱'이 되기 위해 식사량을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을 한다. 여성들은 '말랐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날씬한 몸매를 꿈꾸고, 남성들은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려 한다. 그러나 19세기 서양화가인 르느와르의 그림 「목욕하는 여자」의 여성의 모습에서 날렵한 몸매와 S라인을 기대할 수는 없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비만에 가깝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은 달라진다.

아름다움의 기준만 변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가꾸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신윤복의 「미녀도」와 르누와르의 「목욕하는 여자」의 공통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과거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 했으나 이제는 아름다움을 만들려 한다. 의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이런 희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목욕하는 여자」, 르누와르 작



미녀는 괴로워



2006년 김아중이라는 배우가 '똥녀'로 나온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크게 흥행한 적이 있다.

주인공 '한나'는 169cm, 95kg의 우람한 체격을 가진 여자로, 매우 아름다운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을 가지고 있지만, 똥똥한 외모 때문에 가수로 데뷔하지 못한다. 한나가 하는 일이란 노래는 못 하지만 '얼짱'인 립싱크 가수 '아미'의 대역 가수로 무대 뒤에서 대신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 한나가 어느 날 전신 성형수술을 받고 몸무게 48kg, 완벽한 S라인 몸매의 가수 '제니'로 다시 태어난다. 그 뒤로 제니에게는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PD '상준'의 눈에 들어 당당히 무대에 서게 되고, 눈부신 외모로 팬들을 열광시킨다. 불운

했던 날들이여, 영원히 안녕! 한나, 아니 제니는 어두웠던 지난날에 작별을 고하며 행복의 눈물을 흘린다. 그런 그녀에게 2%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하지만 사랑마저도, 그녀가 미처 외로워할 틈도 없이 불쑥 찾아온다. 상대는 바로 그녀의 짝사랑 상준.



그런데 뜻밖에도 제니는 라이벌 아미의 폭로로 전신 성형 사실이 들통 나 가수로서 최대 위기를 맞는다. 그때 상준의 도움으로 제니, 아니 한나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다.

정체성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통계로
논리 잡기



나는 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가?

‘외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외모에 대한 미련을 접지 못한다. 연예인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성형수술을 하던 시대는 먼 옛날이 되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성형수술에 대한 생각이 크게 달라졌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것이다.

〈표 1〉 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가?

(단위 : %)

전 체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성별	남자	54.2	24.5	21.3
	여자	59.6	23.8	16.6
연령별	10대	49.2	25.2	25.7
	20대	32.1	26.5	41.4
	30대	37.7	28.8	33.4
	40대	49.6	26.3	24.1
	50대	55.8	24.2	20.0
	60대 이상	64.2	22.6	13.2
학력별	중졸 이하	73.6	19.6	6.8
	고졸	67.5	20.5	12.1
	전문대졸	53.2	24.7	22.1
	대학교 졸	46.3	26.9	26.8
	대학원이상	49.6	25.9	24.5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	61.2	22.6	16.2
	100만 원 미만	72.9	19.7	7.4
	100~200만 원 미만	60.7	23.5	15.9
	200~300만 원 미만	56.0	24.8	19.2
	300~400만 원 미만	50.0	24.8	25.2
	400~500만 원 미만	49.4	26.2	24.4
500만 원 이상	48.7	26.2	25.1	

자료 : 「2007 서울 서베이」,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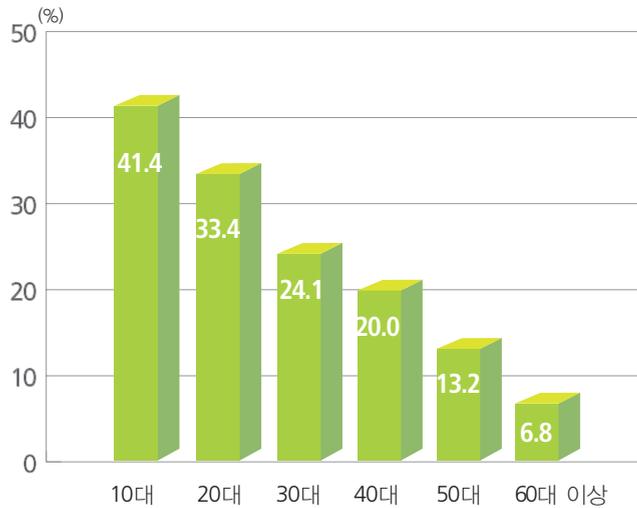
주 : ‘서울 서베이’는 서울의 생활상, 주거 여건, 관심사, 가치관 등을 알아보는 대규모 통계조사로 「2007 서울 서베이」는 서울 시내 2만 가구(가구원 약 48천 명) 및 거주 외국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S t a t i s t i c s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①에 따라 성형에 대한 관심이 각각 다른데,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연령별로는 1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대에서는 무려 41.4%가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또 고소득층일수록 성형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연령별 수치에서 나이가 들수록 성형수술에 대한 열망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나이가 들면서 ‘아름다움은 거품과 같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은 결과일까? 앞의 표에서 ②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연령별 차이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그림 1〉 성형수술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들의 연령별 비교



만약 내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보다 많은 고객을 만들기 위해 어떤 대상을 상대로 광고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까? 앞의 자료를 활용하여 답해 보자.

Hint 각 항목별로 성형수술을 가장 선호하는 대상을 찾아서 정리한다.

성형수술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이 얼마나 시술되고 있는지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찾기 어렵다. 하지만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고 있으며,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통계자료만으로도 얼마든지 추정이 가능하다.

〈표 2〉 연도별 성형 시술 관련 피해 상담 및 구제 신청 현황

(단위 : 건)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상담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1,804	1,859 (3.0↑)	2,753 (48.1↑)	6,416
피해 구제 건수 (전년 대비 증가율)	38	52 (36.8↑)	71 (36.5↑)	161

자료 : 「성형보고서」, 소비자보호원

위의 표에서 '상담 건수'는 2004~2006년 사이에 매우 많이 증가했고, '피해 구제 건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성형수술 자체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의 표를 통해서 우리는 성형수술에 관련된 몇 가지 정보를 더 알 수 있다.

TIP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연도의 수치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늘어난 비율. 증가의 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 ① 상담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 준다. 과거에는 부작용이 있어도 수술 사실을 감추느라 쉬쉬했다면 최근에는 자신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상담하는 쪽으로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알

S t a t i s t i c s

수 있다.

② 또한 상담 건수의 증가는 의료 사고 또는 수술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고 있으며,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원인을 빨리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③ 피해 구제 건수의 수치를 보면,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 구제를 받은 환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성형수술이 늘어났음을 보다 직접 보여 주는 통계자료이다.

〈표 3〉 표시과목 의원별 의원 수 및 의사 수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의원 수	의사 수	의원 수	의사 수	의원 수	의사 수
총계	43,306	50,617	45,784	53,819	46,936	54,724
내과	3,327	3,889	3,481	4,124	3,502	4,163
마취과	484	540	542	605	559	615
병리과	10	29	14	24	14	33
비뇨기과	857	912	879	945	892	945
산부인과	1,679	2,413	1,654	2,420	1,594	2,317
성형외과	549	618	591	663	630	716
소아청소년과	2,002	2,334	2,006	2,363	1,998	2,401
신경과	124	137	123	137	127	144
신경외과	315	361	341	399	341	385
안과	1,088	1,432	1,171	1,538	1,217	1,589
이비인후과	1,650	1,928	1,741	2,039	1,779	2,066
일반	5,680	6,752	6,119	7,383	6,261	7,466
일반외과	994	1,163	1,004	1,189	986	1,160
재활의학과	236	256	253	274	254	271
정신과	627	721	659	758	689	782
정형외과	1,550	1,837	1,648	1,935	1,636	1,886
진단검사의학과	8	11	9	13	8	11
피부과	756	1,056	818	1,162	860	1,192
핵의학과	1	1	1	1	1	1
치과	11,675	13,500	12,307	14,363	12,641	14,695
한방과	8,744	9,661	9,461	10,389	9,995	10,810
기타	1	1	2	2	4	4

자료 : 「2008년도 의원급 외래 진료비 지급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

S t a t i s t i c s

앞의 표를 보면, 산부인과·일반외과처럼 육체적으로 고달픈 분야의 의사 수는 감소했고,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는 많아졌다. 변화율을 보면 증가와 감소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 2008년 성형외과 의사 수는 2006년에 비해 약 15.9%가 증가했고, 피부과 의사는 12.9% 증가했다. 이에 반해 산부인과 의사는 4% 감소하고, 정형외과는 2.7% 증가에 그쳤다.

여기서 성형외과와 피부과의 의원·의사 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 분야가 호황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리고 병원이 증가하면서 경쟁 속에서 수술비가 낮아진 것도 성형수술 증가의 한 요인이다

호황 경기(景氣)가 좋음, 또는 그런 상황



S t a t i s t i c s

성형수술의 증가가 사회 현상을 보여 준다

이처럼 성형수술이 급증한 까닭을 꼼꼼이 생각해 보고,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요인들을 정리해 보자.

먼저 사회적 요인은 우리 사회에 외모를 강조하는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대답이 10대에서 41.4%, 20대에서 33.4%나 나왔다는 사실은 외모지상주의가 젊은 층에게 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움'이 개인의 순수한 욕구인지 아니면 사회가 강요한 굴레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요인을 한 가지 더 들자면, 성형을 부정적으로 보고 쉬쉬하던 사회 분위기가 바뀐 점을 들 수 있다. 「미녀는 괴로워」에서 한나가 성형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고 성공을 거둔 것처럼, 최근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 요소를 인정하는 쪽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TIP
외모지상주의(Lookism)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 뿐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까지 좌우한다고 믿어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 또는 그러한 사회 풍조

경제적 요인은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신을 위한 투자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수술비용이 이전보다 싸져서 경제적 부담이 적어진 것도 성형수술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술적 요인은 수술 장비, 재료, 방법이 발전해 의료 사고와 부작용 위험이 많이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그 뒤로 성형수술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계자료를 통해서 성형수술의 증가와 그 사회·경제·기술적

S t a t i s t i c s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형수술의 증가에 '외모지상주의'가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성형은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모지상주의는 인종차별이나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차별을 낳을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외모에 대한 고정된 시각을 갖게 하여 사람에 대한 자긍심을 낮추고 각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성형수술은 받으면 받을수록 새로운 곳 성형에 매달리게 되는 '중독'의 위험성도 있고, 부작용으로 고통 받다 삶을 포기하는 사건도 종종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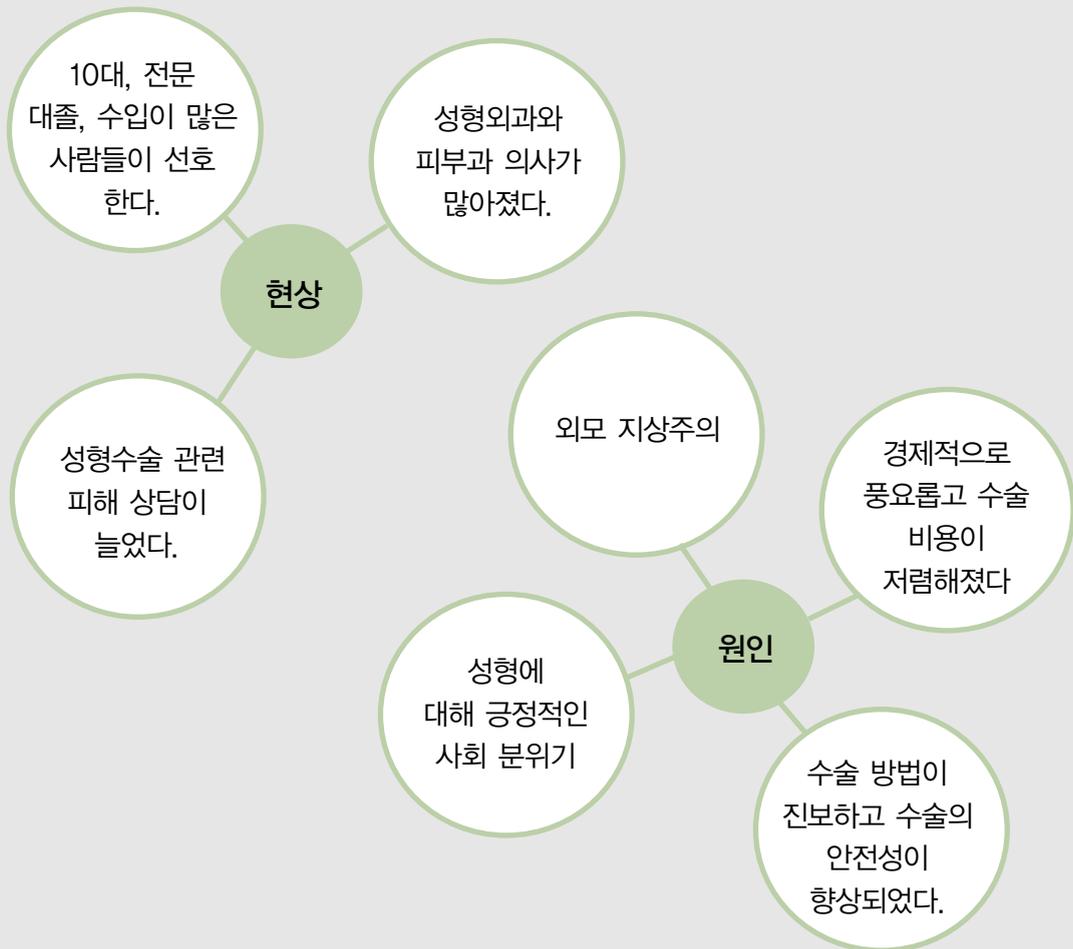
성형의 긍정적인 요소라면, 「미녀는 괴로워」에서 한나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성형을 통해 자신감과 자아를 찾았다. 하지만 '제니'로 살면서 겪었던 정체성의 혼란은 성형의 부정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반면에 장애우에게 성형수술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며, 생애 최고의 선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성형수술은 충분히 긍정성을 가지고 있다.

논리 따라가며 정리하기

최근 성형수술이 늘고 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선호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함

생각펼치기



질문



‘미모를 위해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자신의 대답은?

- ① 그렇지 않다.
- ② 약간 그렇다.
- ③ 매우 그렇다.

자신의 답변에 대해 그 까닭을 써 보자.

질문



외모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사례를 써 보자. 그리고 ‘외모지상주의’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써 보기로 하자.



S t a t i S t i c S

생각필치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개인의 순수한 욕망일까? 아니면 사회가 강요한 굴레일까?”라는 물음에 자신의 생각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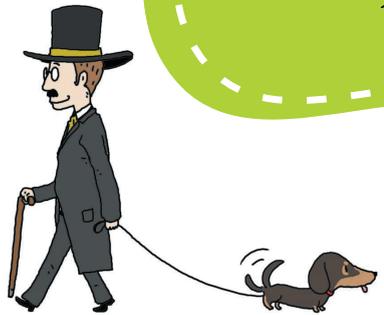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provided for writing an answer to the question.

chapter

05

고령화 사회의
빛과 그늘



생각열기

01



60세, 제2의 청춘



여러분은 '9988' 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이상한 숫자의 조합은 '99세 이상까지 팔팔(88)하게 살자' 를 뜻한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평균수명이 약 40세 전후였다. 그래서 60세만 되어도 대단히 오래 산다고 생각했기에 성대한 환갑잔치를 벌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환갑잔치를 하는 것이 축스러운 분위기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7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60대 어른을 '할머니, 할아버지' 라고 부르면 실례가 되는 세상이다. 60세 정도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제2의 청춘기' 라 생각하고, 젊어서 일에 쫓겨 누리지 못했던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려 한다. 이를 위해 노인대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노년층이 늘어났다. 사회적으로도 노인을 위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의료·복지 시설을 세우는 실버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S t a t i s t i c s



02

생각열기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 상상은 해보셨나요?

아이보다 어른이 많은 나라, 상상해보셨나요? 2009년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의 나라,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른 중인 나라, 2009년 노인인구비율이 37.2%에 이르는 나라,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내 아이를 갖는 기쁨과 나라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다.”

엽기적인 유괴·실종 사건 보도나 공포영화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린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북한의 핵보다 무서운 것이 저출산”이라고까지 표현했다.

평균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이 포스터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지하철에서 일반석과 경로석이 뒤바뀐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다.

통계로
논리 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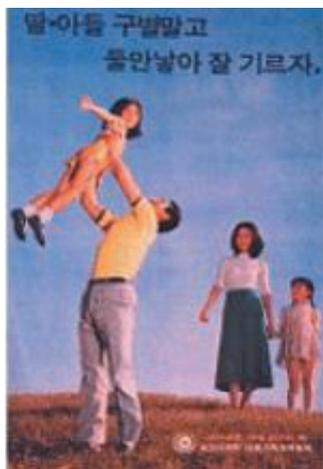
고령화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

“3·3·35 운동에 참여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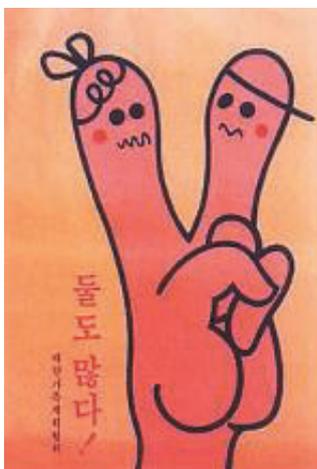
1966년 정부가 내놓은 표어다. 무슨 암호 같은 이 숫자는 ‘3년 터울로, 3명만, 35세 이전에 낳자’는 의미로, 6.25 전쟁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출산을 막기 위해 등장한 정부 정책을 대변한다. 숫자 ‘3’으로 대표되던 가족계획운동은 1970년대 들어 ‘2’로 바뀐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유명한 표어도 이때 나왔다. 여기서 딸을 앞세운 이유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의도인 것 같다. 그러다 1980년대에는 아예 하나만 낳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1960~80년대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을 거치면서 한번 꺾인 출산율은

〈그림 1〉 출산 정책에 따른 포스터의 변천 과정



1970년대



1980년대



2007년

S t a t i s t i c s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거기에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들도 많아졌다. 그 결과, 2005년엔 이른바 '1.08 쇼크'가 찾아왔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08명까지 내려가면서 세계 최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TIP

기대여명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표 1>에서 2000년도의 기대여명이 75.9세라는 것은 2000년도에 출생한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나이를 의미한다.

<표 1> 우리나라 연도별 출산율 및 기대여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출산율(명)	2.83	2.20	1.60	1.65	1.47	1.08
기대여명(세)	65.7	68.4	71.3	73.5	75.9	77.7

자료 : 통계청

고령화 사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고령화된 사회’란 노년층, 특히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진 사회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구성비에 따라 ‘고령화 사회-고령 사회-초고령 사회’의 3단계로 나눈다.

고령화 사회의 분류

	고령화 사회 (aging society)	고령 사회 (aged society)	초고령 사회 (super-aged society)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7% 이상 ~14% 미만	14% 이상 ~20% 미만	20% 이상

〈표 2〉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단위: 천 명, %)

	1980	1990	1998	2000	2008	2010	2018	2026
총인구	38,124	42,869	46,287	47,008	48,607	48,875	49,340	49,039
65세 이상	1,456	2,195	3,069	3,395	5,016	5,357	7,075	10,218
구성비	3.8	5.1	6.6	7.2	10.3	11.0	14.3	20.8

자료: 2008 고령자 통계, 통계청

고령화 사회 진입

고령 사회 진입 초고령 사회 진입

〈표 2〉에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65세 이상 노년층이 10.3%로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TIP
‘구성비’란? 전체에서 특정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오래 사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그러나 단지 오래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 일정한 소득과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장수해야 행복할 수 있다. 가족의 돌봄 없이

S t a t i s t i c s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속에서 나이만 많아진다는 것은 어찌 보면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측되고 있다.

전체 인구 중 노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젊은 연령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 사회에서 일할 젊은 사람이 줄어들어 생산 활동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고령화는 그 사회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다.

이와 함께 고령화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노년층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금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에는 연금제도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돈을 내고 나이가 들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 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잘 유지되려면 돈을 내는 젊은 층이 돈을 받는 노년층보다 많아야 한다. 젊은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담액은 줄어든다. 만약 노년층이 늘어나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었는데, 그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은 줄어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해 노년층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리고 사회가 고령화되면 노년층에 대한 복지비용이 증가하여 이 역시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증가와 같은 문제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7 국민 의료비 추계'에 따르면 2007년 건강보험 지출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9조 813억 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8.2%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인 노년층이 전체 의료비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처럼 현재도 65세 이상 노년층의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앞으로 계속 부담이 커진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왜냐하면 그 비용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보험료를 결국 젊은 층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가 고령화되면 젊은이들의 세금·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 노년 세대에 대한 젊은 층의 불만이 커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자

평균 수명이 늘어나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젊었을 때는 바빠서 할 수 없었던 일도 하고 여유 있게 산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여유로운 노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노후가 준비된 개인에게는 고령화가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겠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장은 크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은 물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창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지어내거나 만들어 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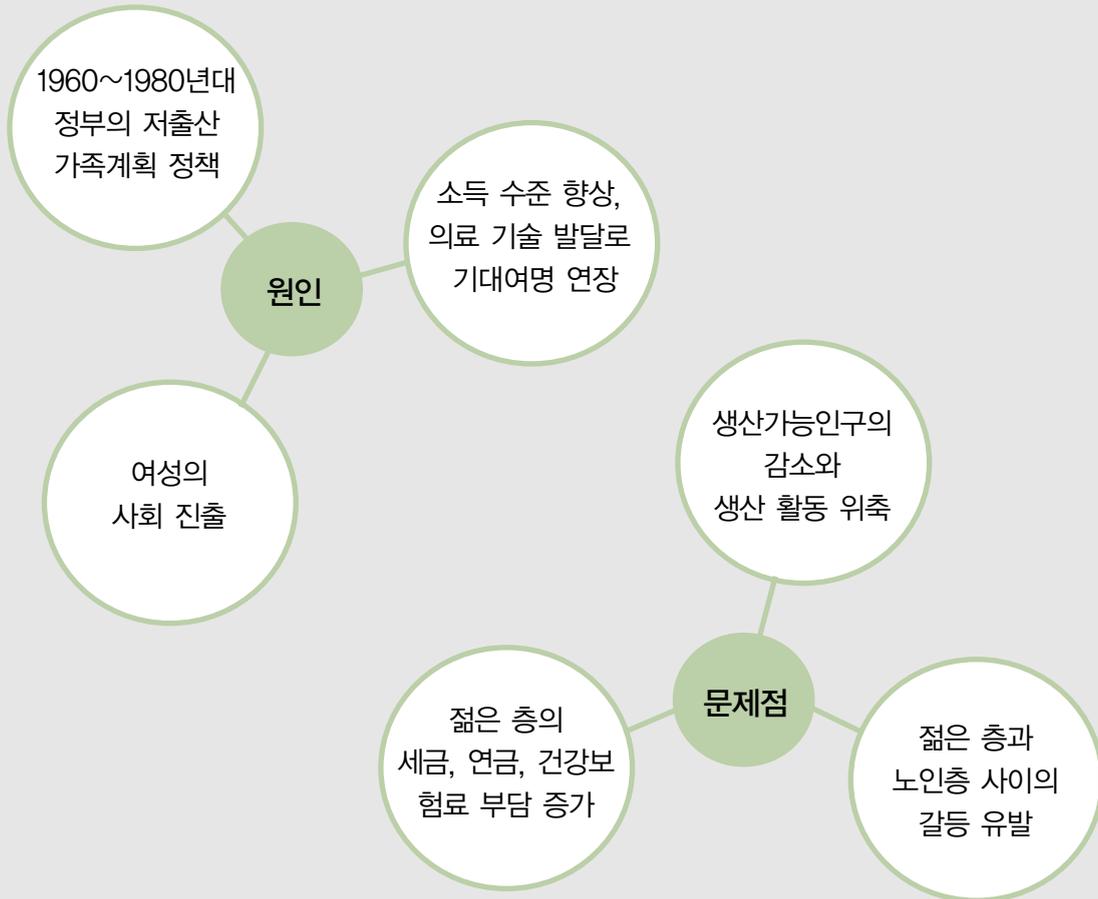
논리 따라가며 정리하기

고령화 사회가 사회적으로 문제다



오래 산다는 게 좋은 것만 아니라구?!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의 인구가 많아진 사회



생각펼치기

S t a t i S t i c S



-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보험 제도가 활성화 되었다.
- 우리나라는 전업주부 여성이 많다.
-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기계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 곳이 많다.



활성화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활발함. 또는 그러한 기능을 활발하게 함
기여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원인

해결책

〈참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밟으면 매우 효율적이다.
 현상에 대한 사실적 이해 →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 인식 → 문제 발생의 원인 찾기
 → 해결책 또는 대안 제시



chapter

06

휴대전화,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휴대폰이 없던 ‘기다림’의 시절



옛날 옛적에는 어디든 사람이 직접 찾아가
말이나 편지를 전하였다.

“서방님, 한양에 가신 지 어언 석 달이 지
났건만 언제나 돌아오시려나 기다리고 기
다리다 이렇게 서찰을 보내옵니다.”

근대에 우편제도가 생기자, 우체국을 통
해 서로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

“여친,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읍내 극장에
서 영화 보자. 두 시에 극장 앞에서 기다
릴게.”



19세기에는 전화기가 발명되어, 먼 곳에 있
는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이따 5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미뤘
으면 좋겠는데 전화를 안 받네. 어
찌지? 혼자 계속 기다릴 텐데…….
큰일이군.”



기다림 No! 우리는 휴대폰 세대



상식 이야기

- 'telephone'은 '멀다'는 뜻의 'tele'와 '소리'라는 뜻의 'phone'이 결합된 말이다.
- 1876년 벨에 의해 전화기가 발명되었다.
- 1970년 당시 서울 50평 집값이 230만 원, 전화기 값은 260만 원이었다.
- 우리나라에서 공중전화기는 1966년 6월 1일, 10곳에 처음 설치되었다.



통계로
논리 잡기



휴대폰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온 것은 1896년이다. 경복궁에 자석식 교환기 9대가 설치되었다. 그 전화는 궁중에서만 사용되었고, 민간에서 사용된 것은 1902년부터이다. 전화 사용자는 1905년 기준으로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아래 도표를 보면, 1980년부터 전화 가입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1999년부터는 일반전화보다 휴대폰 가입자가 더 많아졌다. 2007년에는 국민 1천 명당 일반전화는 477명(1인당 0.5대꼴)이었고, 휴대폰은 897.67명(1인당 0.9대)으로 거의 한 대씩 갖게 되었다.

〈표 1〉 전화 가입자 수

	일반전화 가입자 수		이동전화 가입자 수	
	(천 명)	천 명당	(천 명)	천 명당
1949	41	2	-	-
1980	2,705	71
1984	5,595	138	3	0.07
1985	6,517	160	5	0.12
1990	13,276	310	80	1.87
1995	18,600	412	1,641	36.40
1999	21,250	456	23,443	502.90
2000	21,932	467	26,816	570.10
2007	23,130	477	43,498	897.67

자료 : 「통계로 본 대한민국 6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통계청, 2008

S t a t i s t i c s

일반전화가 널리 보급되자 국민들의 생활은 무척 편리해졌다. 멀리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집에서 듣게 되고, 편지 대신 전화로 소식을 전하면서 의사소통의 속도가 무척 빨라졌다. 그런데 휴대폰의 등장은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와 생활방식, 인간관계까지도 변화시켰다.

휴대폰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할 수 있고, 목소리 통화뿐만 아니라 문자통화, 영상통화도 가능하다. 의사소통은 더욱 빠르고 다양하게 이루어졌고,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까지 더해져 실시간으로 사진을 주고받는 등 사람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친밀감을 높여 주었다. ‘덜렁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은 알람 기능 덕분에 생일과 기념일,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게 되어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휴대폰에 인터넷까지 연결되자 사람들은 집과 PC방에서 해방되었다. 거리에서도 메일과 각종 정보 검색이 가능해졌고, 영상통화도 가능해졌다. 공원에 앉아서도 스포츠 중계, 온라인 게임, 영화나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 현금과 카드 결제 등 은행 업무와 증권 투자, 각종 티켓 예매, 쇼핑도 간단히 휴대폰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휴대폰은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각종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는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기기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발달이 교통사고의 증가를 가져온 것처럼 문명의 이기는 혜택이 있으면 폐해도 있기 마련이다.

휴대폰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학자들은 운전 중 휴대폰 통화가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원치 않는 광고성 전화가 시도 때도 없이 걸려 와서 사생활에 피해



S t a t i s t i c s

를 주기도 한다.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는 여성들의 몸 일부를 은밀하게 노려 찍는 (몰카) 성추행범들에 의해 악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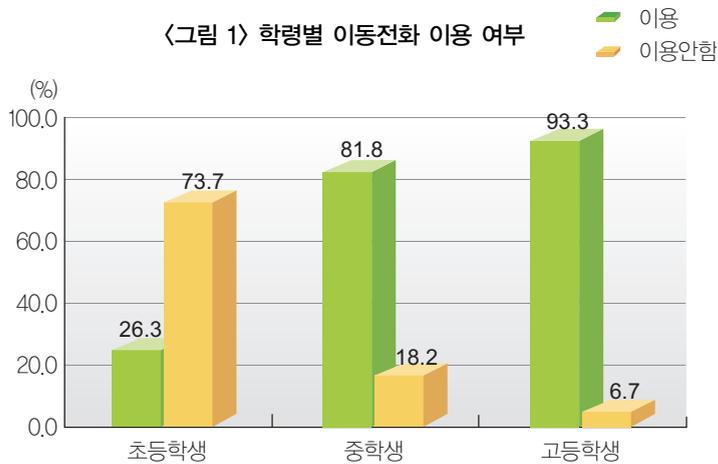
휴대폰의 폐해는 개인적 차원에서도 나타났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다보니 휴대폰을 분실해서 전화번호를 몽땅 잃는 불상사는 그렇다 쳐도, 지나친 통화와 부가서비스로 인한 과도한 요금 문제,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심리적인 문제,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중독증 등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기 이롭고 편리한 기계나 기구
폐해 폐단으로 생기는 해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

아래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09년 현재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93%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휴대폰 보급률이 높아진 까닭은 무엇일까?

어느 소비자단체에서는 그 원인을 이동통신회사의 상술, 즉 '공짜 휴대폰' 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요금제, 아이템을 앞세운 부가서비스, 스타를 모델로 한 광고의 영향 등을 꼽았다.



자료 : 「2009 청소년통계」, 통계청

휴대폰이 생활필수품이 되면서 청소년과 성인층의 '휴대폰 중독증' 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독이란 어떤 것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그것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다음은 인터넷 중독 실태 조사를 위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작성한 설문 문항

S t a t i s t i c s

이다. 자신도 혹시 중독 상태가 아닌지 설문에 응답해 보자.

다음 항목에서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에 표시하십시오.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휴대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배터리가 한 눈금만 남으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요금이 많이 나와 사용을 줄이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 중에도 전원을 끄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휴대폰을 남과 다르게 꾸미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외워서 걸 수 있는 전화번호가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심심하면 별다른 용무 없이 전화 건다.	①	②	③	④	⑤
8) 휴대폰 전화가 왔는지 자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집전화기가 있는데도 휴대폰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10) 수업 중에 문자가 오면 바로 답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자료 :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평가 방법

①은 1점, ②는 2점, ③은 3점, ④는 4점, ⑤는 5점으로 하고 자신이 체크한 번호의 점수를 모두 더하여 총 점수를 구한다(만점 50점).

30점 이상 : 휴대전화 중독 사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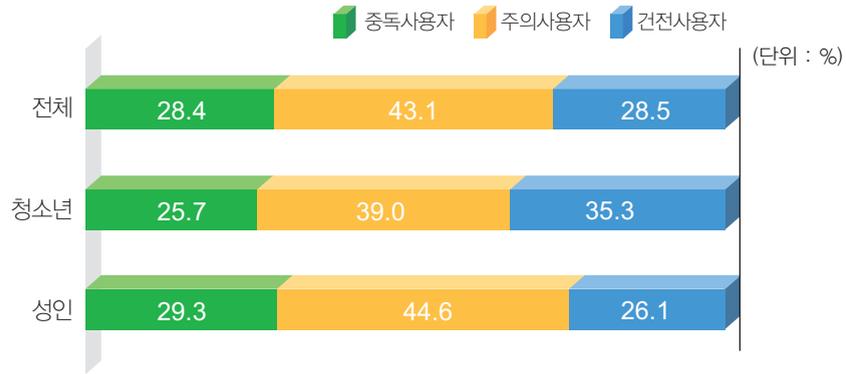
21~29점 : 휴대전화 이용에 주의가 필요한 '주의 사용자'

20점 미만 : 건전 사용자

이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 실태는 다음 그래프와 같다.

S t a t i s t i c s

〈그림 2〉 휴대전화 이용자의 휴대전화 중독률



자료 : 2008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청소년의 경우 25.7%가 중독사용자이고, 39%가 주의사용자, 35.3%가 건전사용자로 나타났다. 휴대폰 사용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이 64.7%나 된다. 그런데 성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 사용자가 26.1%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아마도 성인들은 사업상 통화를 많이 하게 되고, 급하고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주고받기 때문에 휴대폰 중독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성인보다 청소년층의 휴대폰 중독성이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휴대폰 중독의 문제점은, 그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생활의 편리를 위해 만든 도구가 오히려 정상적인 생활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해로운 도구이다.

휴대폰 의존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 방법은, 먼저 위의 설문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심각한 상태이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 일상생활에서 휴대폰을 손에서 떨쩍이 떼어놓거나, ‘휴대폰 없는 날’을 정해서 휴대폰 없이 생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휴대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편리함은 즐기되 그 폐해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S t a t i s t i c s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휴대폰 사용에 관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할 점은, 공공장소에서의 통화 예절이다. 지하철이나 버스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통화를 하거나, 너무 크게 노래를 듣는 것은 피해야 한다. 벨소리를 진동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에티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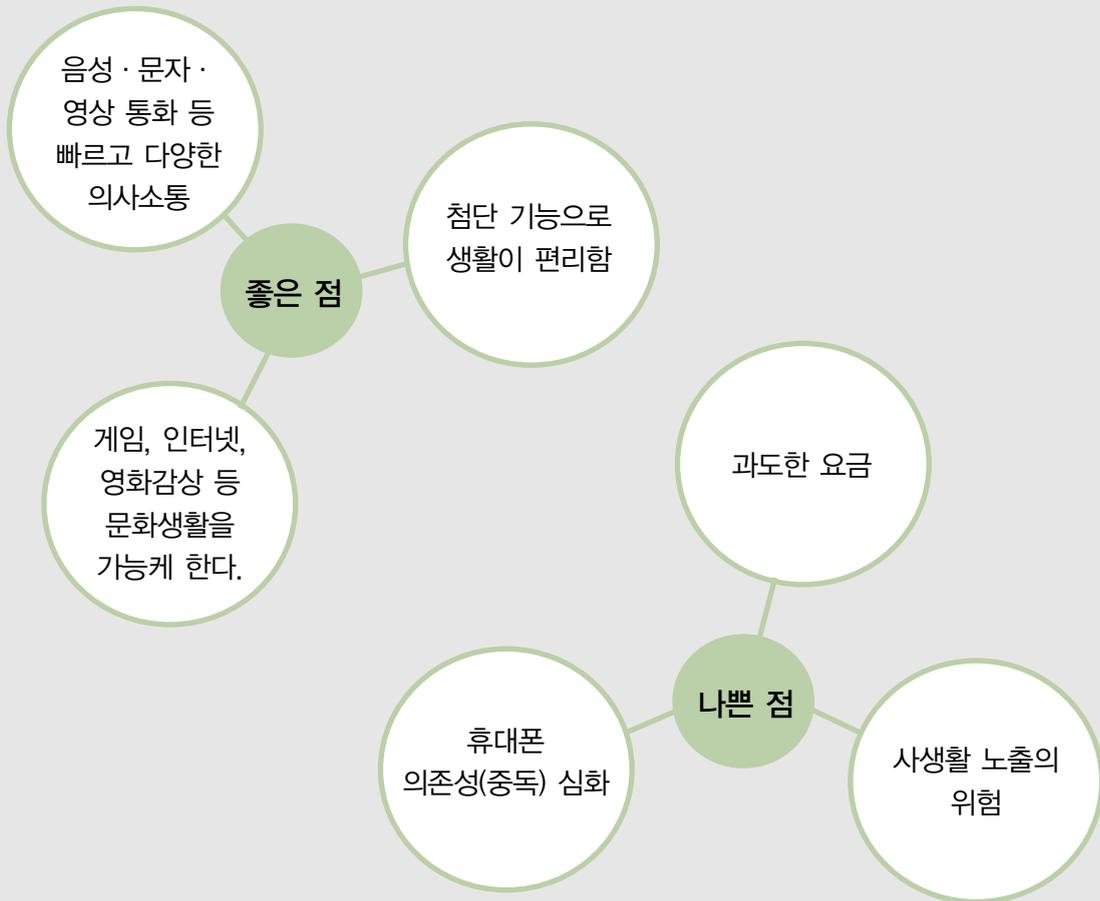


논리 따라가며 정리하기

휴대폰은 우리들의 필수품이야~



하지만 잘 쓰는 게 중요하잖아!



심화 정도나 경지가 점점 깊어짐. 또는 깊어지게 함

생각펼치기



다음 <보기>와 같이 가족과 함께 휴대폰 한 달 사용료를 작성하고,
우리 가족의 한 달 수입과 휴대전화 통신료 합계를 비교해 보자.



<보기>

우리 가족	휴대전화 유무	한 달 사용료
1 아빠 : 홍길동	○	55,000원
2 엄마 : 김영희	○	34,000원
3 나 : 홍나영	○	28,000원
4 동생 : 홍나석	×	—

합계 : 117,000원

월수입 : 2,500,000원

월수입 중 휴대전화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 : 4.68%

우리 가족	휴대전화 유무	한 달 사용료
1		
2		
3		
4		
5		

합계 원

월수입 원

월수입 중 휴대전화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 %

S t a t i s t i c s

생각펼치기

<참고> 2002년 가구당 월 7만 2180원이던 휴대전화 요금 지출은 2007년 9만 1,894원으로 늘어 가계지출 가운데 이동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3.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15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chapter

07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생각열기

01



장애를 뛰어넘은 그들





02

생각열기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띠띠띠띠띠.....

“지금 XX, XX 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으므로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지하철 승강장에 서서 이 안내방송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자.

스크린도어(안전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통계로
논리 잡기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명사] 1.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람.

위에서 묘사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병신(病身)이다.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병든 몸'을 지칭한다. 하지만 우리말 사전은 이 말에 다음과 같은 뜻도 있다고 쓰고 있다.

2.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주로 남을 욕할 때에 쓴다.

그렇다. '병신'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저 한자 그대로의 의미인 '병든 몸'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남을 비하하거나 욕할 때 주로 사용한다.

사실 이 단어를 이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욕을 해대는 것이니 당연하지 않은가. 실제로 어느 누구도 자신과 친한 사람, 아니 그렇게 가깝지는 않더라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앞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두 번째의 뜻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병든 몸'을 가리키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뜻으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S t a t i s t i c s

아마도 이 말이 그런 뜻으로 사용된 데에는 질병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사고가 한 몫하고 있으리라. 옛날 사람들은 질병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나쁜 환경 때문에 몸이 허약해진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늘이 내린 천벌의 결과로 이해하였다.

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사람의 됴됨이를 평가한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하늘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신(神)이기도 했다. 따라서 질병을 천벌, 즉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이해했던 것이다. 따라서 병든 사람은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병든 사람을 홍보면서 동시에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도 그와 같은 병든 몸이 되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라도 다질 수 있었으니, 병신이라는 단어가 남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이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겠다고 이해하도록 하자.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질병은 바이러스나 불행한 환경, 혹은 참혹한 상황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이 과학의 시대에 더 어울린다. 이처럼 나쁜 말인 줄 알면서도 용감무쌍하게 그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나는 다수고 너는 소수야!’

비하 업신여겨 낮춤

감염 병원체인 미생물이 동물이나 식물의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일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을 놀림감으로 삼는 것은 '나는 정상'이라는 쓸데없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우월감의 밑바탕에는 '나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는 원래 장애인이 아니니까, 또는 내가 조심하고 의지만 있으면 장애인이 될 리 없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다음의 통계표는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매우 다르다는 점을 알려준다.

〈표 1〉 연령대별, 장애 종류별 분포

(단위 : %, 명)

	만 0세 ~17세	만 18세 ~29세	만 30세 ~39세	만 40세 ~49세	만 50세 ~64세	만 65세 이상	계	전국 추정 수
지체장애	0.9	2.1	6.8	19.4	35.3	35.5	100.0	1,132,116
뇌병변장애	3.8	1.9	3.8	8.0	36.6	45.9	100.0	219,156
시각장애	1.8	1.6	5.4	11.9	31.3	48.0	100.0	220,061
청각장애	2.1	1.7	4.0	9.6	27.3	55.6	100.0	207,383
언어장애	7.7	5.8	11.5	17.8	24.3	32.8	100.0	15,103
지적장애	30.4	26.6	16.2	15.5	8.7	2.5	100.0	140,079
자폐성장애	78.5	18.5	2.2	0.1	0.7	0.0	100.0	12,329
정신장애	0.3	6.0	21.3	35.2	29.4	7.4	100.0	84,780
신장장애	0.3	4.6	10.8	21.7	38.9	29.8	100.0	48,284
심장장애	6.9	3.5	3.9	9.1	28.9	47.7	100.0	14,606
호흡기 장애	0.0	0.8	2.9	7.0	38.9	51.5	100.0	14,393
간장애	4.4	1.8	5.6	26.5	52.6	9.2	100.0	6,514
안면장애	6.6	8.6	29.9	22.2	31.1	8.2	100.0	2,185
장루요루장애	1.4	0.6	3.2	6.9	28.4	39.6	100.0	11,356
간질장애	4.3	11.3	22.2	36.2	23.2	2.9	100.0	8,881
전체	3.9	4.0	7.4	16.7	32.0	36.1	100.0	2,137,226

자료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S t a t i s t i c s

앞의 통계 자료를 보면, 우선 참으로 많은 분들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층에 장애인이 있다는 것도 새삼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좀 더 주의 깊게 표를 살펴보면, 17세 이전까지의 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의 3.9%에 불과한 반면, 만 50세 이상의 장애인이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쩌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태어난 이후 어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와 같은 생각은 위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태어났을 때는 정말로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표 2〉 장애 원인

(단위 : %, 명)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전체
선천적 원인	2.5	2.4	3.0	7.4	21.4	28.9	22.3	1.7	0.4	11.4	0.0	3.3	18.8	1.1	3.9	4.9
출산시 원인	0.1	1.8	0.3	0.0	1.3	2.5	4.2	0.0	0.0	0.0	0.0	0.0	0.0	0.0	0.9	0.5
후천적 질환	45.6	86.9	58.6	73.7	53.3	18.5	9.1	80.9	98.5	87.5	98.6	96.4	21.4	94.3	58.1	55.6
원인 사고	51.3	8.3	35.1	13.4	8.0	9.2	1.0	13.9	1.1	1.0	1.4	0.3	57.9	4.5	19.7	34.4
원인 불명	0.5	0.5	3.1	5.6	16.0	40.9	63.4	3.5	0.0	0.1	0.0	0.0	1.9	0.0	17.4	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1,132,117	218,561	220,061	207,383	15,102	139,138	12,150	84,781	48,284	14,606	14,393	6,514	2,185	11,355	8,882	2,135,512

자료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S t a t i s t i c s

하지만 두 번째 자료를 종합해서 보면 이제 좀 분명해진다. 장애 원인을 조사한 결과, 태어난 이후에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된 경우가 90.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느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일일이 피하면서 살아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모두 언젠가 장애를 지니게 될 존재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S t a t i s t i c s

이제, 다시 장애인을 바라보자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럿 있는데, 각각이 담고 있는 의미는 서로 다르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발전>

Handicaped person

손에 땀을 쓰고 있는 사람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을 강조한 말로 장애인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표현이다.

Person with disability

능력이 없는 사람
‘사람’이라는 뜻의 ‘person’을 앞에 놓아, 다 같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장애는 부차적인 것으로 표현했다.

The Challenged person

도전 받은 사람
Physically challenged(지체 장애인),
Visually challenged(시각 장애인),
Mentally challenged(지적 장애인) 등

The Differently abled

또 다른 능력자
‘장애인(disabled)’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뒤집어, ‘할 수 있다(abled)’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용어이다. 시각 장애인은 청력·촉각·후각 등을 이용하여 여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체 장애인은 물리적 육체노동이 아니라면 여러 일에 능력을 발휘하며, 심지어 지적 장애인도 육체적인 노동이나 반복적인 노동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S t a t i s t i c s

이 중 어떤 것이 장애인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 하지만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소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아야만 하는 ‘모자란 존재’ 일 뿐이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장애인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건 차별 없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이야기한대로 그들이 우리와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을 계획하여, 보다 나은 하루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뀌야 할 생각들은 그들을 외계에서 온 존재처럼 깔보던 의식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만 하는 존재라는 식의 사고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워버려야 할 쓰레기들이다. 우리가 갖고자 노력해야 하는 생각으로는 그들을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 여기는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들의 의미를 승화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장애인들의 삶의 조건과 관련한 것이다.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보다 편리한 이동수단이 필요한 ‘그들’도 있다. 똑같은 강의를 들

S t a t i s t i c s

더라도 더 적절한 시청각 시설이 필요한 '그들'도 있다. 생리적 현상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그들'도 있다. 지하철 입구에 달려 있는 장애인용 이동수단이나, 한국 영화에서조차 한글 자막을 마련하는 것, 어느 공중화장실이라도 장애인용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 등은 모두 이와 같은 사회적 배려가 깃들어 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처럼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들'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존중해 준다거나, 혹은 '그들'만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왜 '내'가 그래야 하냐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글을 앞에서부터 다시 읽어 보길 권한다. 그것은 결코 '그들'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 그것은 '그들'은 '나'의 내일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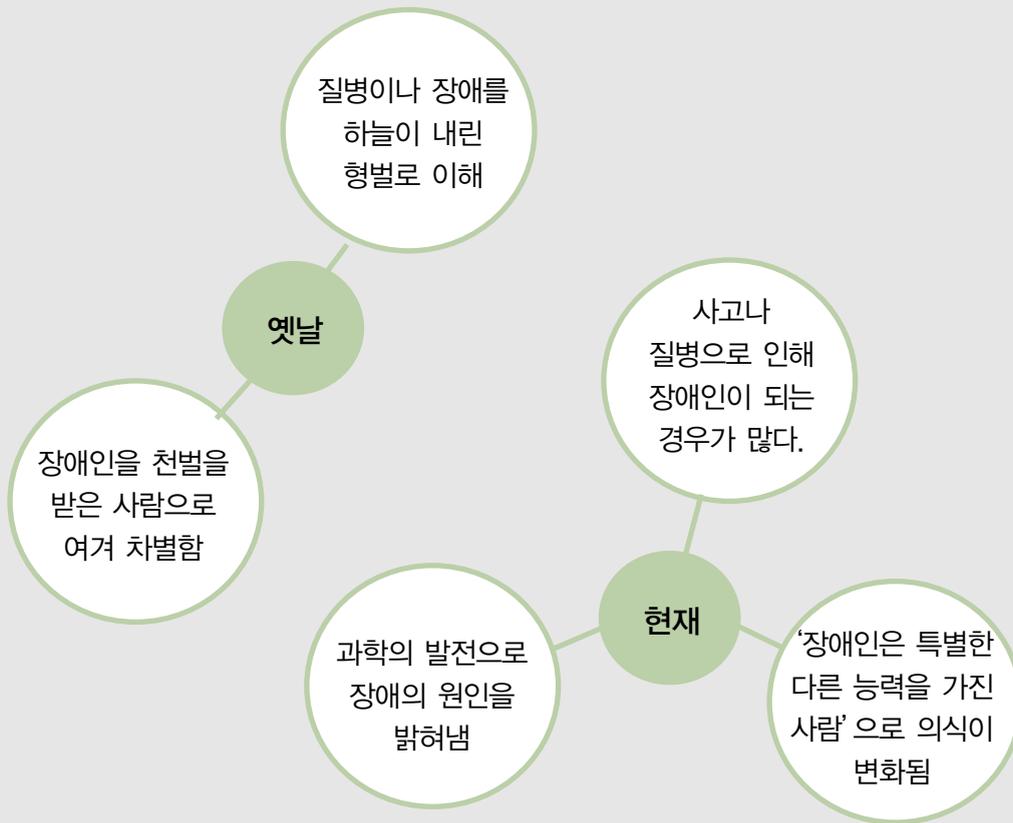
승화 어떤 현상이 더 높은 상태로 발전하는 일

논리 따라가며 정리하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해~



장애인들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야.



생각펼치기



다음 그림 A에서 묘사하는 사람을 아래의 용어에 따라 표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할 때, B의 사람에 대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빈칸을 채워 보세요.



A

Person with disability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

The Challenged person
팔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

The Differently abled
다른 사람에 비해 입(혹은 발)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



B

Person with disability

The Challenged person

The Differently abled

문자 규아남 이눈옥 글자 글자 단자홀 글자 '눈을 띄어 내어문자 글자
문자 규규개 배상 12퍼이름 룽름Y (규자외종 12퍼 룽 글자)규자외 규수 룽
문자 규자 이몽타이 비 규자 룽

chapter

08

기부,
아무나 한다



생각열기

01



기부 천사 문근영, 김장훈

김장훈과 문근영의 공통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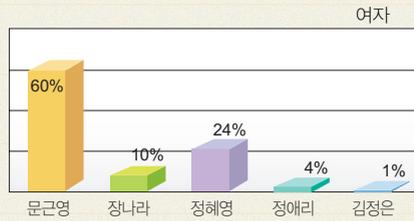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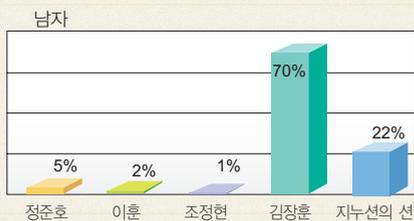
이들은 연예인이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활자화되는 것은 이들이 그냥 아무나
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들로 인정받
는 연예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연예인 중에서는 이들과
달리 유명하지도 않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둘 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
는 스타이다.



여기에 하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 더 큰 박
수를 보내는 이유는 이들이 한결같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
좋은 모범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기부 천사’
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 이것이 김장훈과 문근영의 가장 대표
적인 공통점이다.

일거수일투족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긴다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이르는 말



조사내용 : 선행하면 떠오르는 연예인

조사기간 : 2009년 5월 13일~26일(14일간)

조사대상 : 에듀윌 문화이벤트 설문 참여 회원 1,017명

자료 : 에듀윌



02

생각열기

어떤 기부

주인이 한숨 돌리고 신문을 뒤적이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와 땃국이 줄줄 흐르는 한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저... 쇠머리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하나요?”

할머니는 엉거주춤 앉은 채로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헤아린 뒤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 할머니는 푹배기를 손자가 앉은 쪽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소년은 침을 꿀꺽 삼키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점심 먹었어?”

“그러업, 어서 먹어라.”

할머니가 깎두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고 있는 동안 소년은 국밥 한 그릇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참 운이 좋으십니다. 할머니가 우리 집의 백 번째 손님이세요. 저희 가게는 백 번째 손님에게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주인은 돈을 받지 않고 할머니에게 국밥 한 그릇을 말아주었습니다.

얼마 후, 할머니와 손자가 또 국밥집에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국밥을 한 그릇만 주문했고 두 사람을 알아본 주인은 또 한 번 백 번째 손님의 행운을 안겨 주었습니다.

TIP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음식을 매우 빨리 먹어 버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우리 속담. 비슷한 표현으로는 ‘남양 원님 굴회 마시듯’,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과 같은 말이 있다.

02

S t a t i s t i c s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보던 주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국밥을 먹으러 왔던 그때 그 소년이 국밥집 길 건너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들어갈 때마다 돌멩이 하나씩을 동그라미 안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 지나도록 돌멩이는 쉰 개를 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주인은 단골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바쁘지 않으면 국밥 한 그릇 먹으러 오라구. 오늘은 공짜야, 공짜.”

그렇게 동네방네 전화를 걸고 나자 국밥집에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든 하나, 여든 둘, 여든 셋…….”

소년의 셈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흔 아홉 개의 돌멩이가 동그라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소년은 황급히 할머니 손을 이끌고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내가 사 드리는 거야.”

진짜로 백 번째 손님이 된 할머니는 따뜻한 쇠머리국밥 한 그릇을 대접 받고 소년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깍두기만 오물거렸습니다.



“저 아이도 한 그릇 줄까요?”

국밥집 주인아주머니가 아저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싹! 저 아인 지금 먹지 않고도 배부른 법을 배우는 중이잖소.”

후룩후룩 국밥을 맛있게 먹던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좀 남겨 주랴?”

하지만 소년은 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 말했습니다.

“아니, 난 배불러... 이거 봐, 할머니.”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에 손님이 몰려들어 정말로 날마다 백 번째 손님, 이백 번째 손님이 생겨난 것입니다.

김병규 「백 번째 손님」, 『TV동화 행복한 세상(3)』 중

마파람 뱃사람들의 은어로, '남풍(南風)'을 이르는 말

통계로
논리 잡기



우리 사회를 밝히는 기부 천사들

우리 사회에서 기부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기부천사’로 불리는 문근영 씨나 김장훈 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쯤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도 소위 스타라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주무르는 돈이 어디 한두 푼이야? 나 같이 먹고 사는 데 혁혁대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을 보고 쫓아갈 수 있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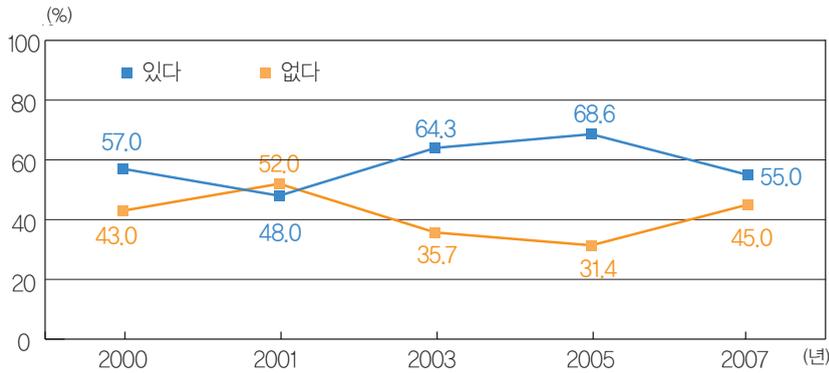
어쩌면 다음과 같은 정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뭐해? 김장훈이나 문근영이보다 많이 버는 스타들도 있을 거고, 기업 사장들도 있을 거잖아. 그들은 김장훈이나 문근영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냐?’ 라고.

위와 같은 생각들은 모두 기부는 나와는 상관없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것을 남의 일인 양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기부하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몫일까? 기부는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접하기 어려운 그런 것일까?

다음의 그래프를 보자.

〈그림 1〉 기부 참여 여부 연도별 추이



자료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2007년

위의 그래프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2007년에 조사한 자료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을 그린 것이다. 그 기간 동안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의 비율의 평균값은 56.58%이다.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중에서 절반이 넘는 숫자가 기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 사회에는 김장훈 씨나 문근영 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부천사라 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기업들의 사회공헌사업이나 기부금 지출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사회의 몫으로 나눌 줄 아는 기

S t a t i s t i c s

업 문화 풍토가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아 반갑다.

요약하건대, 기부는 김장훈 씨나 문근영 씨 같은 걸출한 스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구성원들이 기업은 기업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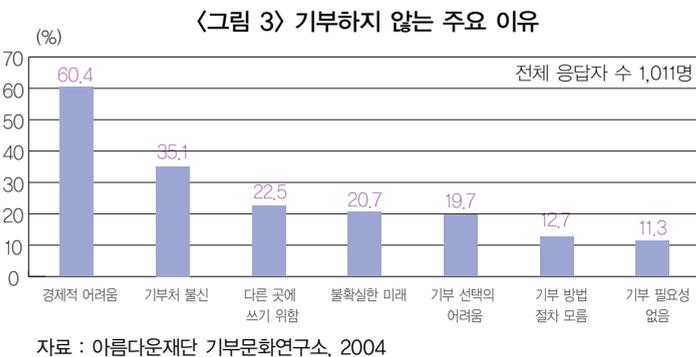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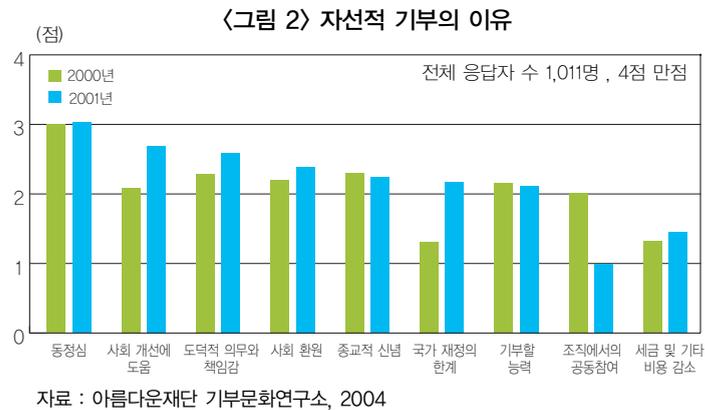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부 행위를 하고 있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또 다른 이익을 위해,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해서 그저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하지만 다음의 자료를 보면 그마저도 잘못된 생각임이 여실히 드러난다.

결출 남보다 훨씬 뛰어남. 또는 그런 사람

기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림 2〉는 자선적 기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따뜻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염려하듯이 좀 불순한 의도로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다. 맨 오른쪽의 '세금 및 기타 비용 감소'와 바로 그 옆의 '조직에서의 공동 참여' 항목이 이와 관련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다수의 이유들은 충분히 윤리적이며,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항목이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S t a t i s t i c s

〈그림 3〉에서는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를 총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보여 주고 있다. 이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기부를 못한다는 말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정말로 먹고 살기에 빠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위 말하는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빈곤층의 대다수는 사실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상대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상대빈곤층’이란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그들이 누리는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 썸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부를 하지 않는다는 60.4%라는 수치는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를 사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생각한다면 매우 불편한 결과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 국민 중 절대빈곤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부를 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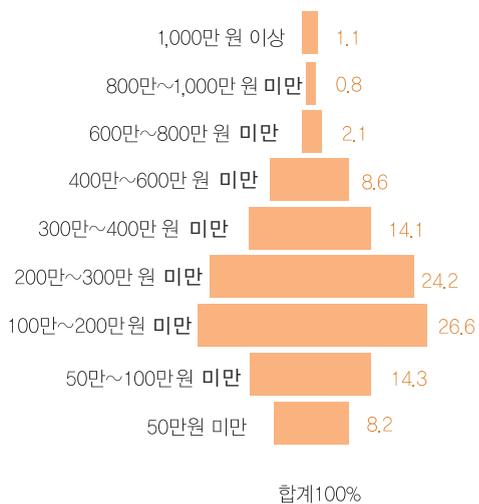


소득이 많아야 기부를 한다고?

정말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만이 기부를 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기부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행복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두 개의 자료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4〉 소득 계층별 인구 비율(%)



자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54935.html

행복경제연구소(소장 조승헌)는 통계청이 2006년 7월, 1만 8,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재분석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표했다.

먼저 〈그림 4〉는 응답자들의 소득 수준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내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응답자들 중 월소득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1.1%에 해당하므로 대략 180명 정도가 된다.

〈그림 4〉는 이처럼 응답자들의 소득 수준을 50만 원 미만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9단계로 나누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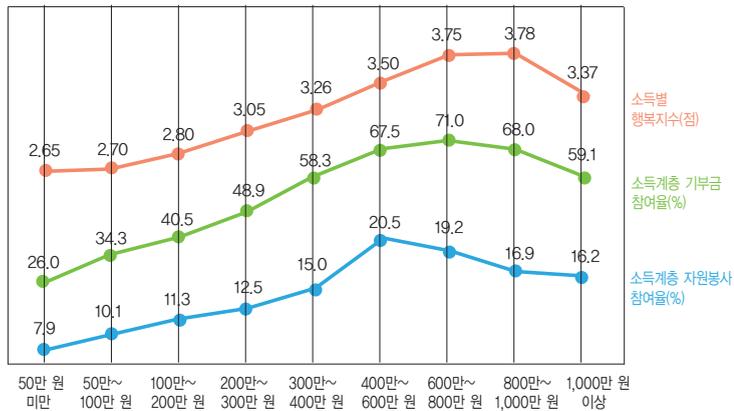
〈그림 5〉는 이 각각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신들의 경제적 여유, 혹은 마음의 여유를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S t a t i s t i c s

이 그래프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행복지수, 기부금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의 계급별 그래프가 모두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재미난 점은 1,000만 원 이상을 버는 소득 수준이 제일 높은 사람들의 행복지수와 기부금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이 최고점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가구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2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기부금을 냈으며, 7.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5> 소득 계층별 행복지수, 기부금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



주 : 행복지수는 최고 5점, 최저 1점
 자료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54935.html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기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너무도 명명백백해졌다. 이제 돈이 없어서 기부하지 못한다고 핑계를 댈 수는 없지 않을까.

유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일

‘마음’으로 하는 기부가 더 소중하다

이스라엘 풍습에 ‘농부는 바닥에 떨어진 곡물, 즉 이삭을 줍지 말라’는 것이 있다. 혼자 사는 과부이어서, 혹은 병든 몸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이삭을 놓아두자는 것이다. 이삭도 귀한 농사로 지은 수확물로 농부들의 마음에는 자식과 같은 소중함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 둘 것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아나바다운동’이 한참이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를 생활화하자는데, 이것이 진정한 기부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기부는 잘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당장 이 글을 쓰고 있는, 읽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기부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기부는 나의 문제이지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겠다. 그렇다면 기부를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의 <그림 3>에서도 기부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서 기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12.7%나 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기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요즘처럼 정보망이 확산된 즈음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 대표적으로 ‘ARS(자동응답서비스) 기부’와 같이 전화 한 통화면



S t a t i s t i c s

2,000원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을 누군가에게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는 반드시 돈으로 할 필요도 없다. 자신에게 필요 없게 된 것, 예를 들어 헌 옷과 같은 것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기부일 수 있다. 그것도 어렵다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노력 봉사하는 것도 기부라 할 수 있겠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처지가 어렵다고 비관하거나 핑계로 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

생각펼치기



※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MBC-TV의 프로그램 <닥터스>는 '국민 남동생'으로 유명한 배우 유승호가 목소리를 기부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닥터스>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작년 연말에 진행된 바 있던 '목소리 기부'를 한번 더 시행했고, MBC-TV '닥터스' 4일 방송분에서 유승호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목소리 기부'란 스타들이 내레이션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것으로 내레이션을 출연료는 사회단체에 기부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인다.
—매일경제 2009. 5. 6.

자료 2. 가수 이문세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저작권을 기부하는 선행을 펼쳐 눈길을 끈다. 이문세는 MBC FM4U의 프로그램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를 진행하며 약 3,000명의 청취자와 함께 만든 노래 '이 겨울이 날 지나간다'의 저작권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문세는 16일 오전 11시 MBC 라디오본부장실에서 전달식을 갖는다.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이문세가 이 곡의 저작권을 기부하여 '이 겨울이 날 지나간다'의 저작권은 이문세씨 사후 50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소유하게 됐다.
—경향신문 2009. 2. 16.

1 위 자료를 통해 기부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 ① 기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다.
- ② 목소리와 같은 자연적 능력은 기부의 내용이 될 수 없다.
- ③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기부할 수 있는 것도 없다.
- ④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 ⑤ 저작권을 기부하는 것이 저작권료를 기부하는 것보다 더 좋다.

① : 3점

생각펼치기

S t a t i S t i c S

2 자신의 주변에 기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친구)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며, 어떤 기부가 필요한지 써 보자.

3 자신이 지금 누군가를 돕기 위해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나열해 보고, 그것을 통해 2번에서 생각한 사람(친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써 보자.

chapter

09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생각열기

01



행복한 삶 찾아 의사에서 요리사로

요리사 노종현(40) 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파밸리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공상의 나라를 편다.

‘그 골목에는 프랑스 레스토랑이 적당하겠어. 요리는 네 가지를 할까? 아니야, 열가지는 넘어야겠지?’

자신이 운영할 레스토랑 서너 채를 짓고 허물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다. 장거리 여행 중에 그가 늘 하는 ‘놀이’ 이다. 그에게 요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행복한 삶의 길을 가리켜 준 이정표다.

그는 원래 의사가 되기로 되어 있었다. 큰 병원의 후계자인데다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그가 하얀 가운을 입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자신에게 의사는 ‘좋지도, 재미있지도 않은’ 직업이었지만, 부모가 모두 의사인 집안에서 그가 할 일은 애당초 그것 말고는 없었다. 미리 정해진 대로 의대를 졸업한 뒤에 떠난 미국 유학길에서 그



S t a t i s t i c s

01



는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곳에서 만난 미국 친구들은 그에게 “자신의 인생을 왜 다른 이를 위해 살려고 하느냐”고 나무랐다.

그러던 중 일본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는 음식 하나로 손님들을 행복에 빠뜨리는 마술 같은 광경에 속 빠져 버렸다.

“난생처음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때가 그의 나이 29살. 의학을 미련 없이 버리고, 그는 미국 요리학교에 입학했다. 그의 반란은 당연히 부모의 극심한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변진 행복한 웃음은 결국 부모의 성난 마음을 가라앉혔다. 자신이 좋아서 택한 일이니만큼 일에 푹 빠져 살았다.

그는 병든 몸을 고쳐주는 의사 대신 행복감을 맛보게 해 주는 요리사가 된 것에 스스로 만족스러워한다. 서른 살 이전에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요리사의 길을 선택한 뒤 그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사는 ‘자신’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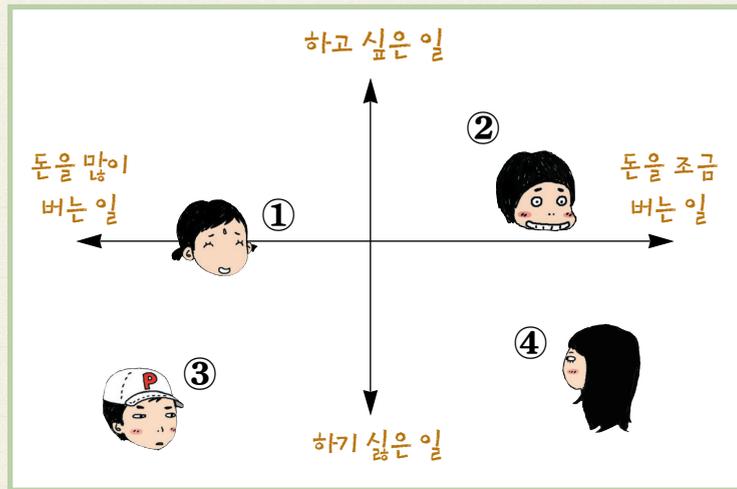
- ○○신문, 2008.11

생각열기

02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선생님 : 여러분. 위의 ①~④와 같이 네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제일 불행한 삶을 사는 걸까요?

다같이 : ④번이요.

선생님 : 참~ 쉽죠? 그래요. 누구라도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불행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요.

다같이 : 네!!!!

선생님 : 자, 그럼 나머지 ①~③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삶을 사는지 한 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죠.

철수 : 전 ①번이요. ②번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지만, 돈을 조금밖에 못 벌잖

아요. 돈이 없으면 정작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③번은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평생 하기 싫은 일을 하며 산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미미 : 전 깔끔하게 ③번 할래요. 옛말에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했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같아요.

재재 : 선생님, 다른 선택은 없는 거예요? 히.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돈까지 많이 벌면 좋을 텐데.

선생님 : 물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위의 ①~④ 중에서 하나의 삶을 산다고 봐야지요.

재재 : 쩌. 그렇다면 저는 ②번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요. 없이 살아도 자존심만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선생님 :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살씩 나이를 먹을 때마다 생각이 열 두 번도 더 바뀔 거예요. 뭐 어떤 것이든 나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수업 끝!!!!~

통계로
논리 잡기



행복지수 102위의 대한민국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주 오래 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우리 영화의 제목이다. 물론 행복의 크기가 성적순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애초에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좀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공부에 열을 올리고, 부모들은 자식을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들이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아니, 성적순이라기보다는 학벌순이라고 하는 게 나을 듯하다. 우리 사회에는 사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성적이, 학벌이, 그리고 경제력이 각자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표 1〉 나라별 행복지수 순위

영국 신경재학재단	영국 레스터대학
1. 바누아트	1. 덴마크
2. 콜롬비아	2. 스위스
3. 코스타리카	3. 오스트리아
4. 도미니카	4. 아이슬란드
5. 파나마	5. 바하마
6. 쿠바	6. 필란드
7. 온두라스	7. 스웨덴
8. 과테말라	8. 부탄
9. 엘살바도르	9. 브루나이
1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0. 캐나다
⋮	⋮
102. 한국	102. 한국
삶의 만족도, 평균수명, 생존에 필요한 면적과 예 너지 소비량 등을 바탕으 로 계산	건강 상태, GDP, 평균수 명, 교육 여건 등을 바탕 으로 계산

자료 : 영국 신경재학재단과 영국 레스터 대학, 2006년

〈표1〉은 나라별 행복지수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2006년에 영국 신경경제학재단과 레스터 대학에서 조사한 것을 각각 양쪽에 나타낸 것으로, 양쪽의 순위가 다른 것은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기준의 상세 조건들은 표의 맨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조건이야 어떻든 양쪽 다 우리나라의 순위가 102등이라는 점은 매우 충격적이다.

TIP

GDP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 국내에서 생산한 모든 것을 합한 것. 국민 경제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 소득 한 나라의 국민 전체가 일정한 기간 동안(보통 일년) 벌어들인 소득.

현재 지구상에 총 몇 나라가 있는지는 조사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세계지도 정보 237개국, 세계은행 통계 229개국, 국정원 자료 231개국), 가장 적은 229개국이라 해도 102등은 겨우 중간에서 약간 앞선 정도이니, OECD 가입국으로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영국 신경경제학재단에서 178개국을 조사한 결과 행복지수 1위의 나라는 바누아투이다. 바누아투?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이 나라는 남서태평양 솔로몬제도와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작은 섬(제주도보다 약간 크다)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달러도 안 되는 나라이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0,000달러 안팎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력이 뒤떨어진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행복지수는 1위란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지 않은가?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정반대인 것 같은 이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의 조건은?

직업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편이다. 하지만 직업을 단순히 경제적인 면으로만 보기에선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특히 하루 중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직장에서 보낸다. 출퇴근 시간에도 동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합치면 반이 넘는 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직업은 한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중요한 직업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표 2〉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

	인원	비율
안정성	377	30.5%
소득(연봉)	345	27.9%
비전	309	25.0%
흥미, 적성	161	13.0%
명예	46	3.7%
합계	1,238	100%

주 : 대학생 1,238명에게 질문지법으로 조사했음
 자료 : 리쿠르트(취업 포털사이트), 2008년

〈표 2〉를 보면,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이 직업을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 1위는 안정성으로 무려 30.5%를 차지했다. 안정성이란 오래도록 변함없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위는 소득(연봉)으로 27.9%. 이 둘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

S t a t i s t i c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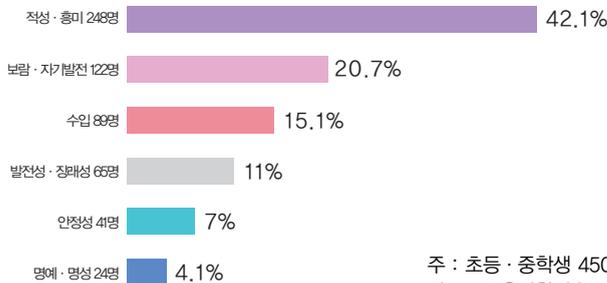
이지만, 정신적 만족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정된 경제생활을 유지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통계대로라면 반이 넘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자신의 흥미, 적성 따위보다는 안정적이거나 보수가 많은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개인적 성취보다는 생활의 안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그림 1>에서 아이들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으로 적성과 흥미를 꼽았다. 안정성과 수입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다. 대학생들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결과다. 하지만 앞서 통계조사에 응했던 대학생들 역시 어린 시절에는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가정이므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림 1> 직업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주 : 초등·중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7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대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도 지금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마다 다른 행복의 기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까? 상상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표 3>에서 보듯이, 자신의 일에 가장 만족하며 살아가는 직업 1위는 '사진작가'로 조사되었다.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업에 속하는 의사는 오히려 맨꼴찌에서 두 번째다.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항공기 조종사가 상위 3위에 든 것을 빼면, 나머지 상위 그룹에 속한 직업은 경제적인 안정과는 그리 연관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경제적 안정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앞의 <표 2>에서 직업 선택의 조건으로 안정성과 소득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에 비추어, 직업을 선택할 때 본인의 소질이나 적성과 무관한 직업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표 3>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상위	하위
1	사진작가	모델
2	작가	의사
3	항공기 조종사	크레인 및 호이스트 운전원
4	작곡가	대형트럭 및 특수차 운전원
5	바텐더(조주사)	건설기계운전원
6	인문과학연구원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7	상담전문가	애완동물미용사
8	인문사회계열교수	금형원
9	성직자	상점판매원
10	환경공학기술자	자동차정비원
11	인문계중등학교교사	연기자

자료 : '미래의 직업세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7년

S t a t i s t i c s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직업과 관련해 보내는 시간은 우리가 눈뜨고 있는 시간 중에서의 절반에 해당한다. 바꿔 말해서 직업 속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삶이 행복할 확률은 훨씬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을 바탕으로 직업을 선택했다면 많은 사람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102위로 조사된 것은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한동안 경제적 풍요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철썩 같이 믿고 있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룬 경제 성장을 통해 이전보다 훨씬 행복해졌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높은 연봉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부하며 산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을 너무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경제적 안정이나 풍요로움을 일부러 멀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행복의 열쇠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삶에 대한 행복감은 직업이 무엇이건,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건, 다니는 대학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결국 자신이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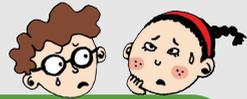
만약 안정된 직장이나 높은 연봉 같은 외형적 모습만을 손에 쥐기 위해 학교에 다니고,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불만족스러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20여 년의 시간을 공부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최소한의 역할이라도 담당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로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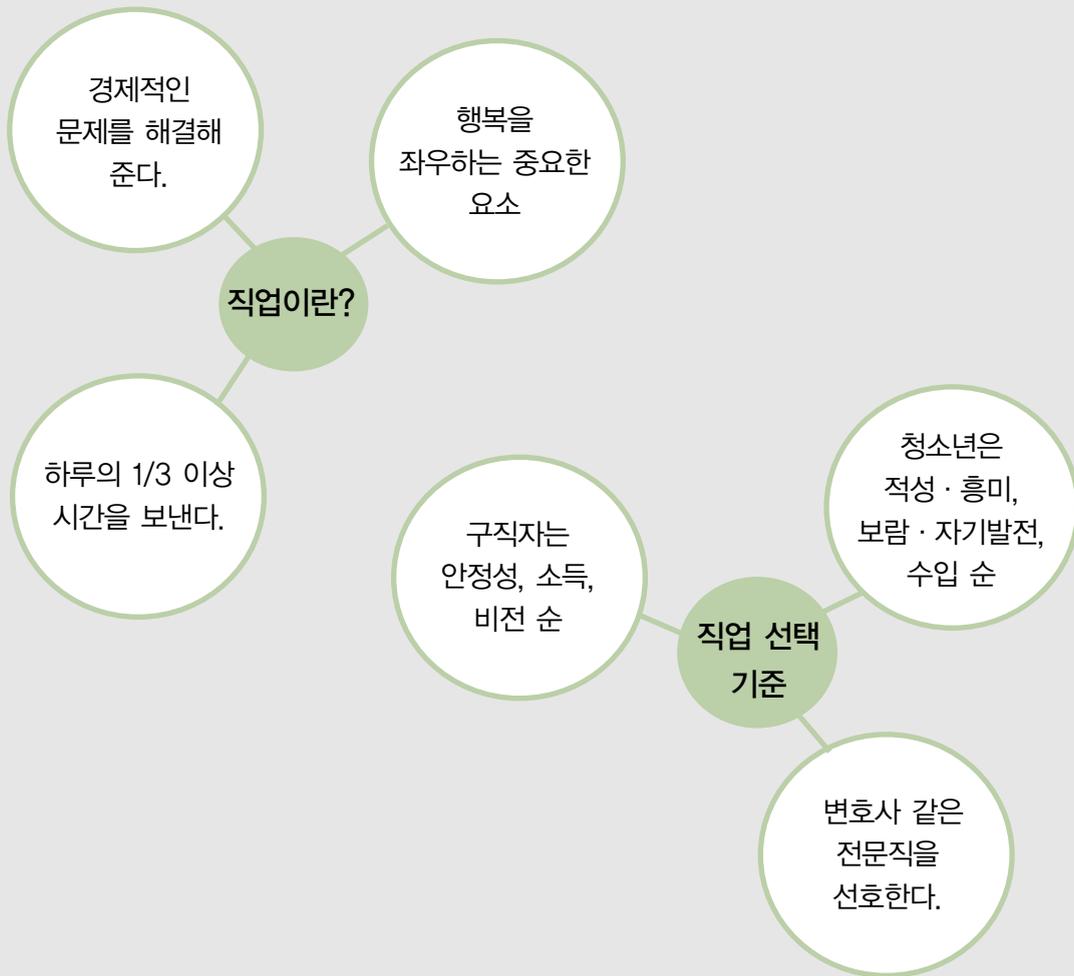
여러분들의 미래를 180° 바꿀 수도 있는 행복한 고민에 한번 빠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논리 따라가며 정리하기

행복의 기준에 따라 직업 선택의 기준도 달라진대~



나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생각펼치기



주변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어른(예: 부모님)을 대상으로 다음의 설문지를 조사해 보세요. 가능하면 여러 어른들을 상대로 조사해 보세요.(최고는 5, 최저는 1로 체크한다.)

학창 시절에 자신은 어느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청소년 시절에 상상했던 자신의 어른이 된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청소년 시절에 꿈꿨던 직업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스스로의 삶을 평가할 때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 4 3 2 1

행복한 정도를 평가하는 데 직업이 어느 정도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었습니까?

5 4 3 2 1

직업 이외에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

생각펼치기

S t a t i s t i c s



조사에 응해 주신 어른의 삶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나요?

-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일치하지 않는지 써 보세요.
- 만약 일치한다면 어른의 삶에 대한 평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써 보세요.

chapter

10

우리의 불편함은
환경의
즐거움!





잃어버린 파란 하늘, 맑은 물



s t a t i s t i c s

01



생각열기

02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올 여름방학에도 가족들과 함께 멋지고 신나는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보니 자동차가 참 고맙네요. 자동차 덕분에 편안하게 여행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있어도 휘발유가 없으면 아무 곳에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석유 값이 자꾸 오르네요. 조금 있으면 석유가 바닥날 거라는 얘기도 자주 들려요.

그런데 지구상의 석유를 몽땅 다 써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원시시대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석유와 관련된 모든 것은 이제 만들 수도, 살 수도 없게 되겠지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도 잘 안 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이나 물건을 사서 쓰는 우리들 모두가 합심해야 할 듯합니다. 휘발유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조금 짧은 거리는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는 것은 어떨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반찬은 조금씩 덜어 먹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모습이 조금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희망찬 내일을 위해 전 세계 국가들과 기업체의 대표들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모였습니다. 이를 하여 ‘리우환경회의’. 이 회의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나친 경제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이로 말미암아 인류와 지구생태계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각성하고,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경제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슬로건이 그 핵심적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조항들을 한번 직접 볼까요?

지속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함
각성 깨달아 앎

리우국제환경선언문

1992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 세계 185개국의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수반들은 한 곳에 모여 지구 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의 공식 명칭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 (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인데, 회의 개최지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이였으므로 ‘리우환경회의’ 라고도 불린다. 이 회의에서 발표한 선언문이 바로 리우국제환경선언문인데, 다음은 이 선언문에 나오는 주요한 원칙들이다.



- 원칙 1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함.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함.
- 원칙 3 개발의 권리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세대와 차세대의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할 수 있도록 실현되어야 함.
- 원칙 4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는 개발 과정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개발 과정과 분리시켜 고려되어서는 안 됨.
- 원칙 5 모든 국가와 국민은 생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세계 대다수 사람들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필수 요건인 빈곤의 퇴치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향유 누리어 가짐

충족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함

통계로
논리 잡기



수려한 삼천리강산을 되찾기 위한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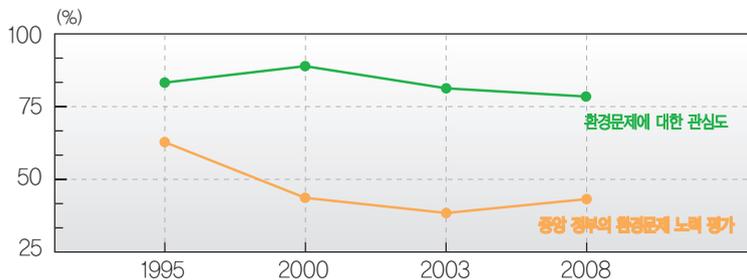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애국가의 한 구절이다. 예전엔 그랬다. 멀지 않은 과거엔 삼천리 화려강산을 느끼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6.25전쟁의 흔적이 전국의 산들을 민둥산으로 만들었어도, 푸른 하늘과 파릇한 새싹을 보며 즐거울 수 있었다. 학교에서 배우는 삼한사온(三寒四溫)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다. 겨울이 되면 7일을 주기로 사흘 춥고 나흘 따뜻한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엔 그런 기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지 못했다.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가 아니다. 겨우 30년 전의 이야기이다. 긴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30년은 짧은 시간이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의 삼천리강산은 이렇게 망가져 버렸다.

화려한 강산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노력에 앞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경문제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1〉 국민의식 조사 결과



자료 : 환경부 「2008년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e-나라지표

S t a t i s t i c s

〈그림 1〉에 의하면 다행히도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로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비록 크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환경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조금은 걱정스러운 결과다.

민등산 나무가 없는 산

삼한사온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동부, 북부에서 나타나는 겨울 기온의 변화 현상
7일을 주기로 사흘 동안 춥고 나흘 동안 따뜻하다는 표현

대기오염의 주범은 우리 부모님?!

환경오염 혹은 환경 파괴를 이야기할 때면 으레 산업화 과정을 떠올린다. 그리고 산업화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에선 검은 연기를 뿜고 있는 공장 굴뚝 사진이 대표적인 상징으로 제시된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공장이 대기 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맞다. 인류 역사 6,000여 년을 돌이켜 볼 때, 실제로 ‘오염’이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과제로 던져진 것은 기껏해야 17,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인간이 가진 자연적인 힘보다 큰 힘을 사용하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면서부터 자연은 엄청난 불치병을 앓는 환자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하늘로 날려 보내는 것을 볼 때마다 비난하고 욕을 한다. 돈밖에 모르고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공장주에게 그 더러운 공기를 모두 들이마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런 태도에는 우리 자신은 공기를 더럽게 만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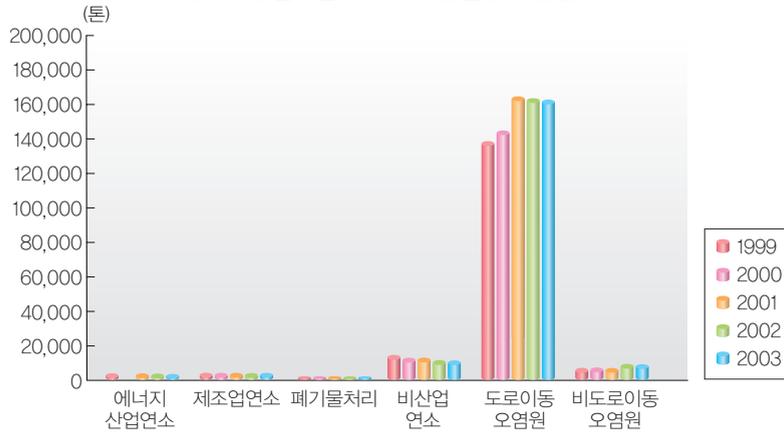
물론 그들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편들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산업화시대를 거쳐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대기 오염 문제는 굳이 그들만의 문제라 할 수 없다. 푸르렀던 우리의 강산이 그 푸름을 잃게 된 원인에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림 2〉는 서울시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인 일산화탄소(CO)가 만들어지는 경로를 조사한 통계이다.

〈그림 2〉에서 색깔이 다른 막대들은 각각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도별 일산

S t a t i s t i c s

〈그림 2〉 일산화탄소(CO) 배출원별 배출량



자료 : 서울특별시청, 2003년

주 : 에너지산업 연소 : 석유 공장, 석탄 공장, 원자력 공장, 가스 공장 등에서 연소되어 나오는 일산화탄소의 양
 제조업 연소 :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의 양
 폐기물 처리 : 쓰지 않게 된 물건을 처분할 때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의 양
 비산업 연소 : 산업과는 상관없는 곳, 즉 가정집이나 상가 등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의 양
 도로이동오염원 : 도로로 이동하는 매체, 즉 자동차, 기차 등이 배출하는 일산화탄소의 양
 비도로이동오염원 : 도로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매체, 즉 비행기나 배 등이 배출하는 일산화탄소의 양

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다. 이 그래프에서는 도로이동오염원을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래프에 나타난 막대의 길이가 다른 오염원에 비해 워낙 길어 통계에 대해 일자무식인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도로이동은 다름 아닌 자동차들이라는 뜻이므로, 결국 위 그래프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자동차들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이다. 재미있는 자료를 하나 더 보자.

〈표 1〉 '차 없는 날' 행사 전후 대기오염도

		차량 통제 구간	차량 운행 구간
일산화탄소 (CO)	9월 18일 01시~9월 22일 04시	1.2ppm	1.3ppm
	9월 22일 05시~16시	1.0ppm	1.3ppm
	증감	20% ↓	0%

자료 : 서울특별시청

S t a t i s t i c s

퀴즈 하나. 서울특별시가 '차 없는 날' 행사를 벌인 것은 몇 월, 며칠일까?

정답은 9월 22일이다. 차량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CO)량이 급격히 감소한 날이 22일이므로 그날이 행사일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 우리 아빠, 엄마들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대기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는가? 차량을 통제하였을 경우 일산화탄소 발생 수치가 무려 20%나 감소했다. 그만큼 자동차 배기가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은 공기에서 숨쉬기 위해 아빠, 엄마들의 차를 버려야 하는 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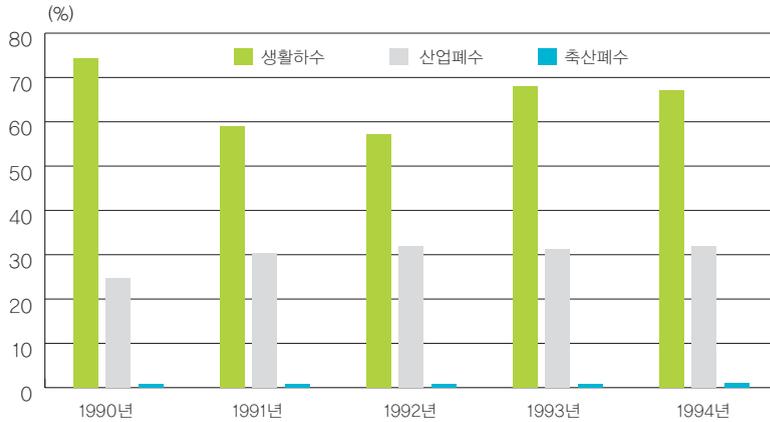
밀접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음. 또는 그런 관계에 있음
경로 일이 진행되는 방법이나 순서

앗! 나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대기오염 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원인이 제공되는 다른 환경문제는 없을까?

이번에는 수질 오염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3〉 오염원별 수질 오염도



자료 : 『환경백서』, 환경부, 1996

〈그림 3〉에서는 연도별로 수질 오염에서 차지하는 생활하수, 산업 폐수, 축산 폐수의 비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자료에서도 너무나 뚜렷하게 수질 오염의 주범이 생활하수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생활하수의 비율이 해가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 다행스럽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과 관련된 통계표를 보니 어떨까? 이래도 공장에서 날리는 시꺼먼 연기와 공장에서 흘리는 폐수만 탓하고 있을 것인가?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S t a t i S t i c S

어느 누구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나의 일상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영향 또한 나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모른 척하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오염된 연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늘로 뿜어 올리는 행위는 환경을 한 방에 망칠 수 있는 것이므로 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의 생활을 절제하는 것도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이란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메랑(boomerang)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이 사용하는 무기의 하나. 활등처럼 굽은 나무 막대기인데,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고 목표물에 맞지 아니하면 되돌아온다.



아래는 철수네 저녁식사 시간의 대화 내용이다.

엄마 : 철수야! 그렇게 밥을 많이 비비면 어떻게 해? 적당히 먹을 만큼 비벼야지. 엄마가 점심에 지은 밥 한 솥을 다 넣었잖아. 그 밥 하느라고 쌀 씻은 물(2l)이 한 바가지야. 양푼에 밥을 그렇게 많이 넣으면 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어져.

철수 : 지금 배가 고파서 밥을 많이 먹을 거예요. 간장에 비벼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엄마 : 너 그러다가 배탈 난다. 어휴~ 그럼 한번 맛있게 비벼 봐라. 남으면 엄마 아빠도 같이 먹으면 되니까.

철수 : 히히, 그럼 한번 비벼 볼까? 우선 밥을 통째로 넣고, 그 담에는 간장을 한 숟가락(15ml),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어디 맛 좀 볼까?

엄마 : 싱거울걸? 밥이 많다니까.

철수 : 히히, 좀 더 넣으면 되지. 한 세 숟가락 더 넣을까?

엄마 : 맛있어 보인다. 아, 군침 돈다. 그럼, 엄마는 국물을 준비해야겠네? 비빔밥에는 뭐니 뭐니 해도 된장국(150ml)이 최고지. 우리 어제 먹다 남은 된장국 먹을까?

철수 : 네. 좋아요~

엄마 : 어디 맛 좀 보자. 이런! 어제 냉장고에 넣질 않아서 쉬었네. 버려야겠다.

철수 : 진짜? 된장국 맛있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냥 물하고 먹어요.

엄마 : 아빠를 불러야지. 모든 음식은 어른 먼저! 몰라?

철수 : 아차차차차. 너무 배가 고파서 그만 깜빡했네. 아빠 식사하세요!!!!



1

이 대화를 통해 배출되는 오수(汚水)를 다시 깨끗한 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청정수가 적어도 얼마나 필요한지 아래 표를 참조하여 답을 구해 보자.

오염원	물의 량(ℓ)	희석 비율(배)
간장 한 숟가락 (15mℓ)	450	30,000
정종 (20mℓ)	810	40,500
쌀뜨물 (2ℓ)	1,200	600
된장국 (150mℓ)	1,410	7,050
마요네즈 (10mℓ)	2,400	241,000
우유 1팩 (200mℓ)	3,000	15,000
어묵국물 (500mℓ)	7,500	15,000
사용하고 남은 기름 (500mℓ)	99,000	198,000

오수 규정물
 청정수 맑고 깨끗한 물
 희석 용액에 물이나 다른 용매를 더하여 농도를 묽게 함
 방치 내버려 둠

chapter

11

통계야 나와라.
승리가 간다!



생각열기

01



통계를 알면 놀다가도 과자가 생긴다!

 영희야, 넌 어떻게 그렇게 가위바위보(묵찌빠)를 잘해? 너한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같아. 비법 좀 가르쳐 주라~

 비밀이다. 뭐... 그런 손해보는 짓을 내가 왜 하나?!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남자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한 번도 이길 수 없냐고요~. 그러지 말고 썸만 가르쳐 주라. 응?

 흠... 에이 이런 거 그렇게 쉽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애걸복걸하는데... 영희 너 정말 치사하게 이러기야?

 흠... 알았어~ 가르쳐 줄게. 단!

 단?

 앞으로 내가 먹고 싶다고 할 때마다 과자 사라.

 카카~. 뭐 그런 것쯤이야. 너가 내 곁에만 있어 준다면야 평생 동안이라도 살게. 후후~

 까분다. 자꾸 그렇게 간죽대면 안 가르쳐 주는 수가 있어.

 하하 알았어. 먹는 거 하나는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 어서 가르쳐 주거나 해.

 바보야. 그게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줄 알지? 굳이 비법이라고 한다면 네가 너무 무식하다는 것과 내가 그걸 이용한다는 것이지.

 뭐시라? 내가 무식하다고?

 그럼... 넌 맨날 가위를 낸 다음에는 반드시 보자기를 내잖아. 그러니 네가 가위 내고 내가 주먹일 때, 내가 '보!' 만 외치면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 네가 바보일밖에!!!! 호호호~

 으헉!!!



02

생각열기

통계를 잘못 이용하면 시험을 망친다!

선생님께.

선생님, 저 영희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 영희예요.

선생님께서 한껏 기대하셨는데 이번 시험도 망쳤어요.ㅠㅠ 너무 죄송해요. 다른 과목은 몰라도 선생님 과목만큼은 잘 보려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잘 볼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너무나 부끄럽게 나왔네요.

근데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느라 했는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 참……. 제가요, 이번 시험 잘 보려고 이제까지 선생님께서 내셨던 문제를 모두 다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단원에서, 교과서 몇 페이지 몇 번째 줄에서 문제를 내셨었는지 몽땅 조사해서 그걸 아예 외우다시피 했는데……. 근데 시험지를 받아 보니 선생님께서 이번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내신 것은 반박에 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께서 늘 “시험공부하지 말고,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에야 가슴에 와 닿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저는 시험 점수를 잘 맞으려고 골라서 공부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 지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도 실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공부한 부분 부분들의 내용은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선생님께서 말씀



02

S t a t i S t i c S

하셨던 진짜 '공부' 는 아니겠지요?

이번 기회로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놓을게요. 이제 진짜로 공부에 올인 하는 법을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마 선생님 얼굴을 뵈면 면목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 띄워요. 다음 시험에서는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따끔하게 꾸짖어 주세요. 그럼 학교에서 밝은 얼굴로 뵈겠습니다.

만수무강 하옵소서...^^



통계로
논리 잡기

스포츠는 통계의 과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는 신체의 발달을 위한 물리적 움직임, 즉 운동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스포츠는 지속적 움직임을 통해 근육을 키우거나 몸의 균형을 잡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스포츠에는 통계, 혹은 통계적 사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개인 운동을 하는 이유는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그냥 무작정 많이 움직이기만 한다고 건강한 몸뚱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한 운동으로 몸이 상한 경우가 더 많다.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의 하루 운동량은 세계 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지만, 그렇다고 가사만 돌보는 전업주부님들의 몸매가 소위 '쭉쭉빵빵' 한 몸매가 아니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모든 통계가 그러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통계는 '자주'와 보다 깊은 관련이 있다. 오른손잡이 대부분은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 약간 크다. 왼손에 비해 오른손을 '자주' 사용하였으므로 근육이나 골격이 더 훌륭하게 발달한 결과이다. 만약 누군가 왼손을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발달시키고 싶다면, 그 사용 빈도를 따져서 왼손에도 그만큼의 일을 부과하면 오른손처럼 훌륭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왼손도 오른손만큼 '자주'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전문 헬스 트레이너들의 조언에 따라 운동하는 것이 집안 청소를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 그리고 하루 종일 사방팔방을 뛰기만 하는 것보다 몸 전체의 근육을 균형 있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통계 지표를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하느냐와 관련 있다.

S t a t i s t i c s



통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 운동만이 아니다.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집단적 운동, 즉 경기이다. 그 중에서도 구기 종목은 통계 지표를 활용하는데 특히 탁월하다.

경기에 이처럼 통계 지표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운동 경기는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자체가 갖는 특성보다는 상대를 이겨야 한다는 경기의

S t a t i s t i c s

목적이 도드라지기 때문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하지 않았던가. 나의 실력이 출중한 것에 더하여 상대방이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를 알면 이기려는 목적을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탁구 시합에서 이기려는 사람은 실력도 좋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라면 공격력이 좋은 선수인지, 수비력이 좋은 선수인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이 공격할 때, 주로 어느 쪽 공격에 승부를 거는지 정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배구 경기에서는 선수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런 규칙 때문에 전략 구상에 통계는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상대방 공격수가 장신 선수일 때, 우리 편 수비수가 단신이어야 보다 효과적으로 그 공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도 역시 통계적 추론에 근거한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통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스포츠는 야구가 아닐까. 야구는 모든 기록이 통계적 수치라 할 수 있다. 타자의 타율이나, 투수의 방어율, 타자가 때린 공이 주로 어느 쪽 방향으로 날아가는지를 따지는 것도, 그리고 투수가 주로 어느 쪽 방향을 공략해서 던지는지에 대한 기록도 결국 통계다.

빈도 같은 현상이나 일이 반복되는 도수(度數)
 부과 일정한 책임이나 일을 부담하여 맡게 함
 조언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움. 또는 그 말
 출중 여러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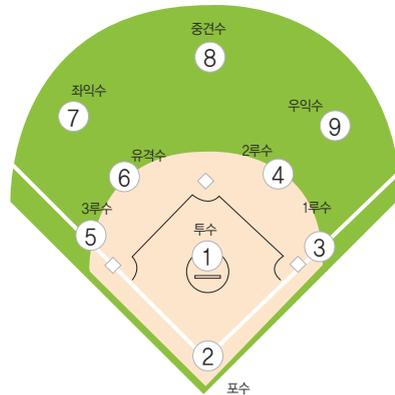
최빈값과 수비 쉬프트 전략

이처럼 통계적 스포츠이기 때문일까? 야구에서는 기록을 통한 전략이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 매우 독특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수비 쉬프트라는 것이다. 수비 쉬프트란 특정 선수의 타구 방향을 미리 예측하여 타구가 주로 많이 가는 방향으로 수비수가 이동, 집중 배치되는 수비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같은 수비 쉬프트는 과거 전설적인 타자였던 테드 윌리엄스부터 배리 본즈, 데이빗 오티스, 제이슨 지암비 내지는 이승엽 등 희대의 왼손 강타자들을 막기 위해 등장한 수비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이 수비 쉬프트가 미국에서 메이저 리거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를 막기 위해서 또 다시 등장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 5월 18일,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팀파베이가 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타석에 추신수 선수가 등장하자, 상대팀인 팀파베이의 조 매든 감독은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내야수들의 수비 위치를 변경했다. 1루수가 파울라인 바로 옆에 서고 그 옆에 2루수가 서고, 유격수는 2루 베이스 근처에, 그리고 3루수가 원래 유격수 자리에 서서 수비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수비 형태는 그동안 추신수 선수가 때려낸 안타 방향에 대한 통계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림 1〉 야구장에 배치되어 있는 수비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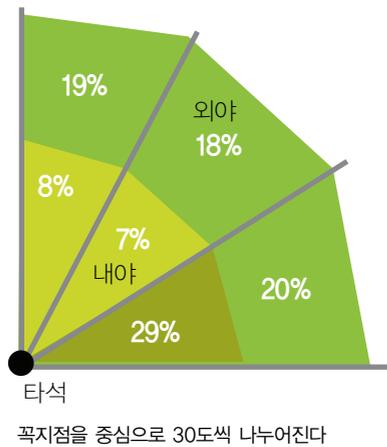


ESPN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한 해 추신수의 타구 방향은 외야 좌익수 방향

S t a t i s t i c s

으로 19%, 중견수 방향으로 18%, 우익수 방향으로 20%가 날아갔다. 세 방향이 아주 고른 부챗살 타법이다. 하지만 내야 타구 방향을 따질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1루 쪽으로 29%가 날아갔지만 2루 베이스 쪽으로 7%, 3루 베이스 쪽으로는 8%의 타구만이 날아간 것이다.

<그림 2> 추신수 선수의 타구 방향과 그 통계



메이저리거 미국 최고 수준의 프로야구 경기(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를 말한다

전략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추신수(秋信守, 1982년생) 대한민국 야구선수.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팀 선수다

ESPN Entertainment and Sports Programming Network(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약자.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로 스포츠 방송과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하는 24시간 방송사이다.

S t a t i S t i c S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자.

팀파베이 팀의 감독이 추신수 선수의 날카로운 타구를 막아낼 비책에 대해 고심하면서 사용한 대푯값은 무엇일까? (앞서 「1장 스타 연봉 속에 숨은 비밀」에서 대푯값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얼른 답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잠시 앞으로 가서 해당하는 부분을 복습해 보길 바란다.)

팀파베이 팀의 감독이 수비수들을 이동시킨 것은 대푯값 중에서 최빈값을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자 입장에서 보면, 야구장은 <그림 2>와 같이 1루수 방면부터 3루수 방면까지 90° 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타석을 기준으로 1루수 쪽과 2루수 쪽, 그리고 3루수 쪽을 바라보고 30° 씩 나누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추신수 선수의 공은 내야 타구는 거의 대부분이 1루수 쪽 30° 를 향하여 날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팀파베이 팀 감독에게 의미 있는 대푯값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추신수 선수가 치는 공을 막는 입장에서는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이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었을까? 팀파베이 팀 감독은 추신수 선수가 친 타구가 주로 1루수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통계적 계산에 근거해서 내야 수비수들을 대거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통계를 제대로 읽어야 추신수 선수를 막지

최빈값을 사용하여 수비수들의 위치를 이동하였지만, 과연 팀파베이 팀 감독의 의중대로 추신수 선수의 타력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까? 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통계 자료를 잘못 적용하거나 활용한다면 그에 따른 결과는 원하는 대로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추신수 선수의 타구 방향을 다시 보자.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추신수 선수의 타구는 사실 전체 중에서 외야수를 향한 타구가 약 57%에 달하고, 내야수를 향한 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43%에 그친다. 그렇다면 수비수들을 1루 쪽으로 이동한 팀파베이 팀 감독의 수비 쉬프트 전술은 결국 외야쪽 타구 57%는 버리고 가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런데 이거, 위험한 전술이 아닐까?

그림에서 보듯이 외야수를 향하는 타구는 좌익수 방향으로 19%, 중견수 방향으로 18%, 우익수 방향으로 20%가 날아가서 세 방향이 아주 고르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외야수를 향하는 타구의 방향도 1루와 가까운 우익수 쪽의 빈도가 훨씬 높다면, 추신수 선수가 그쪽 방향으로 공을 치는 것을 반대쪽으로 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와 있는 통계는 팀파베이 팀 감독의 계산에 매우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팀파베이 팀의 조 매든 감독, 이제 진짜로 큰일 났다. 통계 믿다가 큰 코 다치게 생겼다. 우리의 추신수 선수가 비록 내야 땅볼이더라도 오른쪽, 왼쪽 어느 방향이라 할 것 없이 잘 쳐내는 선수이므로 수비수들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가 왼쪽으로 타구를 날려 보내면, 그 공 어떻게 잡을지, 심히 걱정된다. 하하하.

생각펼치기



질문

다음의 상차림을 실제로 차려 놓고 도표를 완성해 보세요.
(실제 엄마가 저녁에 차려주시는 반찬들의 이름으로 표를 고치면 됩니다.)

상차림 표

반찬	젓가락,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은 횟수	반찬	젓가락, 숟가락으로 반찬을 집은 횟수
김치		젓갈	
장조림		콩자반	
생선 혹은 멸치볶음		계란후라이	
김		콩나물무침	

1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입니까?

2 젓가락 혹은 숟가락으로 집은 횟수가 많았던 반찬은 무엇입니까?

3 젓가락 혹은 숟가락으로 제일 많이 집었던 반찬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과 일치합니까?

4 젓가락 혹은 숟가락으로 집은 횟수가 가장 적었던 반찬은 무엇입니까?

5 만약 본인이 엄마라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상차림을 마련할 것인지 위의 통계표를 근거로 제시해 보세요.



중학생통계논술

통계로 논리를 잡아라

발행일 2009년 10월 30일

지은이 문우일, 윤상철

삽 화 송아람

감 수 신지은(충남대학교 통계학과 강사), 이용심(통계청)

펴낸곳 플러스 예감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6-61

전 화 02-337-3810

팩 스 02-333-3810

메 일 plusyeagam@naver.com

홈페이지 <http://www.plusyeagam.co.kr>

값 9,800원

ISBN 978-89-90773-34-0 43310